朝鮮日報
夕刊
二十五日(水)
本紙朝夕刊十二面
發行兼編輯人 方應謨
株式會社 朝鮮日報社

海南島를開發하여 日本의南進牽制

英國의南中政策과 크게關聯

宋氏南下積極的活動

宋子文氏

【廣東二十四日發同盟】 宋子文氏는 二十四日 午後四時 廣東에到着하야 二十五日 開業할 廣東銀行開業式에 列席後 廣東省主席黃慕松氏 廣東軍總司令余漢謀氏等과 會談、廣東省財政整理에 關하야 重要協議를行하고 다시 廣西에 돌어가 同省財政再建에 當할 豫定인데 宋氏 今回의 南下는 海南島開發問題가 主要任務라 確聞한다 海南島는 北海事件以來 急激히 重要視되여 英國의 南中政策에 多大한 關連을 가지며 中國으로서는 所謂 日本의 南進政策牽制를 爲하야 同島開發에 主力을 傾注하기로되여 同島三千方哩에 循環鐵道를 建設하고 鑛山 其他重工業原料開發에 着眼하고잇서서 宋氏의 同島入과 同時에 右問題는 急速히 具體化할것으로 推測된다

英國潛水艦隊 西班牙로出動

【말타島二十四日發同盟】 英國地中海艦隊의 精銳세번號以下의 第一潛水艦隊九隻은 二十四日 未明根據地 말타軍港을 出發、朝霧를 突破하며 西方西班牙에 向하야 出動하얏다 一方말타島鎭守府는 將兵의 歸休一切를 中止시키고、地中海艦隊는 命令一下 即時出動할수잇도록 待機하고잇다 二十四日夜는 土耳其艦隊의 公式訪問을 마지하야 水兵拳鬪競技會를 開催할豫定이엿섯는데 開催臨時에 中止하기로되엿다

獨伊兩大使館員 首都로부터撤收

【마드리드二十四日發同盟】 獨伊兩國이 叛軍을 正式으로 承認한結果 西班牙政府는 即時마드리드駐箚獨逸、伊太利兩國大使館의 閉鎖撤收를 要請하엿는데 撤收하는模樣이 업기때문에 델봐요外相은 二十三日 正午 外交團首席智利大使를 通하야 二十四時間의 期限附로 兩國大使館의 撤收를 要請하엿다 兩國大使館은 二十四日正午까지에 드듸어 首都를退去하엿는데 午後一時거이 退去하자마자 政府義勇軍이 大擧하야 兩國大使館에 闖入、家宅搜査한後 大使館을 封鎖하고잇다

潛水艦出動은 單純한通常演習

英海軍省의言明

【倫敦二十四日發同盟】 西班牙叛軍이 바르셀로나港封鎖를 宣言하엿슴에對하야 英國政府는 叛軍政府를 交戰團體로 承認치안코 英國船에對한 强硬行動에 對하야는 實力으로써 抗拒할決意를 表明하얏다 右方針에基하야 二十四日 地中海艦隊第一潛水艇隊에對하야 西班牙沖出動을 命令하얏다 潛水艇隊의 目的地에對하야는 英國海軍省은 言明을回避하고 單純한通常演習이라稱하고잇스나 地中海艦隊의 配置變更은 이든外相이 下院에서 言明한것과가티 英國船에對한 干涉을排擊할趣旨에 나간것은 귀래여 否定치안헛다 더욱潛水艇隊는 西班牙領海內에 進入치안코 專혀三海里沖公海上에서 英國船의保護에 任할것이라한다 第一潛水艇隊의 出動에對하야 英國海軍省은日

潛水母艦 사이크로프스號가말타島軍港을 出發한것은 알리칸테港에 碇泊하고잇는 母艦우리크號와 交替하기爲함에不過하다 潛水艦이 西班牙沖에 出動한것은아니다 英國海軍의出動이 傳하는것은 演習의目的으로 潛水艇隊가 사이크로프스號와가티 말타島軍港을出發한結果라하는데 此等潛水艦은 演習이 終了하면 再次根據地에 歸還할豫定이다

佛政府依然 中立態度堅持

【巴里二十四日發同盟】 佛國政府는 英國政府와協議한結果 西班牙政府及 叛軍雙方을 모다 交戰團體로 承認치안코 어데까지던지 中立態度를 堅守하기로 決定하엿는데 海軍當局은 叛軍의 바르셀로나港封鎖案에對하야 佛國商船及在留民保護를爲하야 이미 萬全의 準備를 整備하고잇다 그리고 佛國政府로서는 叛軍의 海軍力으로서는 바르셀로나港을 有効的으로 封鎖하기에는 到底히不可能하다고 觀測하고잇다

西叛軍에對하야 英政府態度發表

中立地帶設定要求

【倫敦二十四日發同盟】 英國政府는 二十四日西班牙駐箚大使를 通하야 마드리드政府及 부르고스叛軍政府에 對하야 二十三日 下院에서 이든外相으로부터 發表한西班牙內亂에對한 英國의態度及 英國船의不干涉協定違反을 防止할法律制定을 考慮中인旨를通告하엿다 同時에叛軍政府에對하야 바르셀로나港에中立地帶를設定하도록거듭要求하얏다

佛內相後任 도르모輸長任命

【巴里二十四日發同盟】 佛國政府는 二十四日閣議結果 故사랑그로內相의 後任으로 書記官長도르모氏를 內相에 任命하엿다 도르모氏는 本年四十八歲일족이 몬류스市長으로잇섯고 社會黨中堅議員이라한다

獨蘇國交斷絶?

獨大使英首相訪問

【倫敦二十四日發同盟】 倫敦駐箚獨逸大使 리벤트롭氏는 二十三日午後首相官邸에 볼드윈氏를訪問하고 무어인지協議를 遂하엿는데 데이리·헬레그라프紙의 報道한바에依하면 大使는 蘇聯政府가 獨逸人技師에對하야 死刑을執行하면 獨逸政府는 蘇聯政府와 外交關係를 斷絶할方針이라는旨를通告하엿다 한다 그通告에對하야 볼드윈首相은 獨蘇兩國關係의 斷絶은 歐洲의平和工作에 重大한脅威를 與하는것을 述하야 獨逸政府의 自重을要請하엿다고傳한다

레이드·로스氏 日本産業에關해演說

【倫敦二十四日發同盟】 英國政府의 對中經濟特使로서 中國에서 活躍한 레이드·로스氏는 二十四日 倫敦의 로-얄·엠프레스·소사이어티-의 午餐會에서 極東에 關하야 如左히 一場演說을 試하엿다。

余는 最近二回나 日本을 訪問하야 朝野有力者와 懇談하엿다 日本이 彪大한 人口維持에 苦痛하고잇는 事情은 英國과酷似하다 我等은 日本의 立場에 同情할것이다 最近日本의 主要産業家間에는 日本의國難은 一部分의 産業過剩과國內産業家同志의 弱肉强食의 競爭에依한것이라고認定하는傾向이 漸次强化하게되며 生産及輸出의自制運動이 盛히되여왓다 日本의 産業家가 英國은自國産業이 毁滅되는것을 座視치안흘것을 認識한다면 我等은 日本과의 經濟的紛爭을 尖銳化하는것을 不增한다 我等은 日英協定에關하야 若干의諒解가 成立될것을 希望한다 余는 中國將來에對하야는 明白히樂觀的이다 中國의繁榮安定이 增進하면 日本의經濟的困難을 回復하는데 이以上 조흔役割을 할것이업다 日本이 이것을 諒解하면 日英兩國은 相互中國建設運動에 協力하야 中國政策과 協力할수잇다고確信한다

國民政府 德王에게歸順勸告電

【上海二十四日發同盟】 國民政府는 二十四日附로서 蒙政會委員長德王에게對하야 電報를發하야 德王에中央歸順을 勸告하엿는데 그 一節에서 百靈廟는 綏遠蒙古의 管轄區域임으로 德王以下蒙政會의 會員은 各部百靈廟로부터 撤去하라고하고 內蒙古統治의中心地帶 百靈廟永久占據의 意向을 表明하엿다

長城을넘어 中央軍配備

【北平二十四日發同盟】 確聞한바에 依하면 綏遠紛爭이 綏東으로부터 綏北一帶에 亘하야展開되라고 하매 山西로부터前線에 出動의命을바든中央軍 第十三軍(軍長湯恩伯)所屬二萬五千은 萬里長城을 넘어 殺虎口를 通過하야 綏遠省에 들어가 平綏線卓資山南方地帶에 配備를完了하엿다한다

蘇聯政府又復 獨逸人三名逮捕

【伯林二十四日發同盟】 獨逸人逮捕로 獨蘇國內는 緊張을 呈하고잇는데 莫斯科來電에依하면 다시獨逸人三名이 二十一日 하리코프市에서逮捕되엿다 傳하며 獨逸人工業監督官쫑-하-氏는 去十月二十一日『獨逸政府를爲하야 反革命活動을遂行』한嫌疑로 逮捕되여 目下세미팔라틴스크의刑務所에 收容되엿다한다 莫斯科駐箚獨逸大使館은 거듭하는 蘇聯政府의不法拘禁에憤激하야 眞相調査에 躍起하고잇스나 事情은判明치못한 模樣이다

公債消化를爲해 單行法을提案?

馬場藏相이計畫中

【東京電話同盟】 明年度豫算은三十億을 超過하는 歲出總額과十億圓에가까운 新規公債發行에依하야 그將來財政計畫의遂行에對하야 各方面으로부터 深甚한關心을 拂하고잇섯는데 馬場藏相은 右에關하야

一、明年度豫算은 國防充實과産業貿易進展及國民生活安定의經費로 相當히 多額을 計畫하고 所謂放行經費를 是正하고同時에 國富增進에 伴하는自然增收의 增加를 圖함에銳意努力할것

一、年額十億圓의 新規公債發行은 現在의 消化力으로 보더라도 何等不安이업는것

一、今後增稅計畫에 對하야는産業貿易政策을根幹으로하고自然增收를 企圖하는點에 眼目을둘것

一、今後數年間 日本財政을 準戰時經濟體制로보고 日滿中불럭을 中心으로하는 經濟參謀本部的인데오로기-로서 統制를 企圖할것

一、産業貿易 政策의伸展에 關하야는 大藏大臣의 關與를 擴大하고 財政政策을 基調로하야 金融統制資本의 統制强化를 企圖할것

一、公債의 消化를 企圖하는必

繰入金問題를除하곤 總督府豫算順調

總豫算은三億七千萬圓突破?

總督府明年度豫算은 總額四億二千萬圓의 彪大한 要求額으로써 渡東中인大野政務總監、林財務局長以下 總督府關係官에依하야拓務、大藏兩省과折衝이 繼續되고잇는데 問題의外地特別會計로부터 一般會計에繰入金에對하야는 一千九百五十萬圓이란 豫想外의多額이 大藏省으로부터 要求되고 拓務省에서도 國家財政의大局的見地로부터 此를容認하게되는模樣인데 各外地負擔率을 比較하야 朝鮮總督府로서는 一方擴充金을 幾分減額하여서라도 一千二百八十萬圓에 머물게할模樣이데 事務的으로 同額程度의 負擔을 主張하는것이 至當하다고 觀測하고잇다 그러나 他方公債發行額에 對하야는 總督府의 要求額 約六千二百三十萬圓에對하야 約二千萬圓의 容認을어고 公債要求額이 大藏省이 三千萬圓으로부터 一億四千萬圓으로大增額을 하엿슴에不拘하고 他特別會計公債金에 比하야 자못 寬大한査定으로써 마친것은 朝鮮의國家的 重要性을相當히 大藏當局이 容認한것이라할것이며 朝鮮側으로서도 一般會計繰入에 對하야 水害對策 其他에 巨額의 費途를 要하는 지라도 國家 非常時財政을 前提로하야 그一端을 負擔하게되여 結局 朝鮮側으로부터 一般會計에 繰入金은 九百萬圓乃至 九百五十萬圓程度는 不得已할것으로 推測하고잇다 그리고 總督府明年度豫算에서 京釜中央線建設年度割三千萬圓을비롯하야港灣、鐵道、航空、通信의整備擴充治山治水計畫及 燃料、棉花、緬羊計畫等 國策的見地에基하야諸種의新規事業에 對하야는 拓務大藏兩省이共히相當히 半島의重要性을認識하고 眞實로國策的事業計畫에對하야는 積極的으로財源을提示하야 그施設遂行에 協力을不惜하는決意를 示하야 大野政務總監、林財務局長以下拓務大藏兩省의 事務的折衝도 前記繰入金問題를除하고는 자못順調로進行되고잇다하며 明年度總督府豫算은 적어도三億七千萬圓은 不下하리라推測되여 모다未曾有의大豫算이 實現될것으로 觀測되고잇다

獨蘇戰爭

社說

「고양이와개」사이이것은요새의獨蘇關係가 더욱明白히되야가는것을 象徵하는 한流行語가되엿다 事實 西班牙內亂을中心으로하고展開되는『불쉐비즘』과『파시즘』의對立은 날로 上昇일뿐이다 지난九月九日『뉴른베르히』에서開催된『나치스』黨大會에서 宣傳部長『꾀벨쓰』氏가『불쉐비즘』에對한宣戰을 布告하얏고 蘇聯에서는 이에對하야『파시즘』對戰을表明하얏다 여기에 다시 近日의일로『트로츠키』『지노비에프』等反幹部派의 獨逸通謀事件의 一連인 獨逸人逮捕、死刑으로말미아마 國交斷絶? 戰爭? 이러케 兩國의 感情은 그最大限度에까지 拍擊되야 보는사람으로하야금 一觸卽發의 느낌을 가지게할 兩國의 對立은 激化하얏다。

◇

이러케 對立되야잇는 이두나라에서는 한양으로 軍備競爭을하야 서로 相對方보다 優秀한 武器、만흔 兵器를 가지려고 하거니와 他方에잇서 그外交戰이란 實로 想像以上으로 巧妙、複雜한바잇다。卽 蘇聯에서 佛蘇同盟을 締結하면 獨逸에서는 이것을 破壞하려하고 英蘇海軍協定이 成立되는가 보이면 또이것을 妨害하려는것이 獨逸外交의消極的一面이다 그積極的外交로 들만한것은 獨伊協定、獨墺協定、체코、波蘭의 懷柔、蘇聯의 世界的人民戰線促進策에 對하야『파쇼블럭』을 맨드는等兩國은 이와가티 全般的對立을보이고잇는이두나라사이에 이제에는 서로 戰爭에서 바르앗드들이면 만흔兩國의關係는 險惡하야질 스매 獨蘇戰爭의危機는 一觸卽發이라고形容되고잇다 그러면 果然 獨蘇戰爭이 目睫間에이러나느냐하면 그러케생각하는바와가티 쉬이 戰爭이 일어나리라고는 미더지지아니한다 적어도 獨蘇戰爭이 곳생기느냐하는데는 다음의몃가지 事情을 考慮하지안허서는안된다

◇

卽(一)獨逸의東進政策은 단번에『모스코』를 爆擊하려는것이아니고 체코와 波蘭의獨逸民族을 土臺로하야『우크라이나』地方에 植民地를 어드려는것이기때문에 그것은 아즉도 相當히 時日을 要할것 (2)獨逸이 蘇聯에 挑戰하자면 반드시 同盟國이 잇서야 한다 그런데 現在 獨伊協定이 어느程度까지 成立되야가기는 하지만 아즉目前에곳 됨일는지 엇을것이고 여기에도한가지 重大한것은 英國態度다 英國이 獨裁하지안는限 獨逸의東進政策은 여러가지 難點을 가지고 잇다는것 (3)나치스가『쏘비에트』를 公然히 排擊하는것은 歐洲各國의『파쇼』勢力分子를 激하는것이며 또同時에 佛蘇同盟打破의 工作의意味가 多分히 加味되야잇다는것、이 여러가지 事情을 아울러 생각하면 獨蘇戰爭은 現況으로 보아 必至의 事實일것이나 即時開戰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운事情이 잇다。 李申燮

拓務省豫算

【東京電話同盟】 拓務省 明年度豫算은 拓務 大藏兩省 折衝한 結果 二十四日左와如히 決定하엿다 (單位千圓)

歲出總額	二四、五八〇
經常部	五、二九〇
(內譯主되는것)	
本省費	七〇〇
移民教養所補助費	一〇〇
朝鮮總督府補給金	一二、八〇〇
臨時部	九、二九〇
(內譯主되는것)	
拓務本省費增加	八〇
南米移植民及拓殖事業에關한經費	二、五四〇
南洋地方經濟振興方策確定에關한經費	一、二五〇
滿洲移植民費	四、九八〇
(가) 旣送出移民	九五〇
(나) 新規送出移民	三、〇二〇
(다) 其他	一、〇一〇
棉花及緬羊資源開發에關한經費	[illegible]

任하기로 內定 十二月一日臨時總會에서 正式決定할터이다

滿洲政府意見一致 燐寸專賣

【新京二十四日發同盟】 滿洲國政府에서는 燐寸의專賣에 對하야 二十四日前부터 硏究中이든바 二十四日國務院에서 關係各部主事會議後 協議한結果 大體燐寸의 專賣를 實施하기로 意見一致하엿다

財源에依한事業 特別會計公債

【東京電話同盟】 明年度豫算의特別會計公債發行額에 對하야는 一般會計公債發行額 八億三千萬圓과 合하야 公債總額을 九億八千萬圓程度에 머물게할目標下에目下 大藏省主計局으로부터 各省에對하야 折衝을 進行하고잇는데 大略內定한 主된 內譯은 左와如히 合計 一億四千七百萬圓이다

(單位百萬圓)

朝鮮總督府特別會計	六〇
通信特別會計	四〇
鐵道特別會計	四七
合計	一四七

大野政務總監 二十八日午後歸任

總督府明年度豫算折衝을비롯하야 茂山開發重要産業統制法等諸問題에關하야 中央과折衝中이든 大野政務總監은 大體折衝의 成果를 어게되엇슴으로 明二十六日午後十一時 東京驛發歸任途上에 올르게되엿다 二十八日午後三時二十分노조미號로 京城着豫定이다

淸津과七尾 日本海空路承認

【東京電話同盟】 七尾와 淸津을 聯絡한 日本內地 朝鮮間 航空路設備費、維持費三萬五千圓은 大藏省의 査定에 依하야 大部分 承認되엿는데 事務當局은 即時 人員의配置、事務所의建設等 準備工作에 着手하기로되엿다

滿銀理事二氏內定

【東京電話同盟】 滿洲國中央銀行은 今回缺員中의 理事一名을補充함과同時에 다시理事一名을增員하야 首腦部의 陣容을 强化하기로되여 銓衡中이든바 新理事에는 橫濱正金銀行檢査人海上浩、滿銀監理官高木鐵一兩氏가 就

人事·集會

◆金永壽氏(梨專敎授)同校合唱隊引率 西朝鮮、滿洲巡演完了 人事次來社

◆湯村辰二郞氏(京畿道知事)二十六、七兩日間 抱川、漣川、坡州、長湍各郡에出張

八面鋒

◇ 統制의 聲浪이 시끄러운 때라、到處에서 生産者 對販賣會社間 販賣會社 對 需要者間對立抗爭이 激甚。

◇ 開城의 人蔘生産者는 統制會社를 商人들은 販賣會社를 設立코 抗爭。

◇ 京城서는 商人인 販賣會社와 需要者인 飮食店組合과抗爭。

◇ 外面的 繁榮을 爲해서는中間商人인 販賣會社도 必要하지만。

◇ 實質的利益으로 生産者와 需要者의 直接 去來가 便利。

◇ 朝鮮서도 오는 十二月二十日부터 思想犯保護觀察法이 施行된다고。

◇ 아주 條文도 만들지 안코 實施부터 所聞!

◇ 一日은 草案을 發表하야 輿論을 들어봄이 當然。

野談

創刊一週年倍大號 特價三十錢 送料二錢

月定價 一部 三十錢 六個月 一圓六十錢 一年 三圓 (送料並)

支社大募集 冊肆로는 讀者請求하시면 規定書를보내드립니다

日就月將……申鼎言
明君 世宗治下에서 一無名文士가 一躍副提學으로올라가다 監校나或은그만한實力이잇섯느나 巨匠申鼎言의 百枚讀切長編

讓寧漫遊錄……庾秋岡
佯狂으로 世子의位를 辭退하고 八道江山을 漫遊하며 善戲惡과 風流仙遊로 一生을보낸 讓寧大君의 漫遊錄이다。庾秋岡의 百枚長編

罰番半年……金東仁
禁府官員들이 延興府院君 金悌男의宅에 뛰처들어가매、그대 嗣孫인 聚兒가 不知去處엿다 歲月은 一百七十年-洪景來亂이 平安서 일어낫때 都體察使로서 鬼神가치 官軍을指揮한 兵曹大臣 金載瓚과 그의恩人將臣 李昌運의數奇한物語 百五十枚의讀切長編

禮成江에잇는물결……柳光烈
唐商의 奇計에 愛妻를빼앗긴 金生과、사랑하는男便을 남겨두고 唐나라로 잡혀가는美女-그러나 하늘이 그들夫妻의 사랑을 깨트리지안흐섯다。新羅時代의 哀話

新婦는하나인데……方仁根
憲宗年間에생긴 奇異하고도 애처러운 이야기를 大家인 方仁根氏가 꿈인 百八十枚長編의 戀愛小說

寵姬의膝下……琴童
名論下張侍郞가 寵姬의 畵像을그리려다가 생겨난 神妙不可思議한 이야기다。百枚長編

御史李建昌……書定昊
暗行御史 李建昌이 平安道山邑을 巡察할때에 深深山中에 뜻아닌 巨村을發見하엿다。그正體는? 八十枚中編

趙宰와侍女……任英彬
天下의 奇書『千一夜話』의 번역이다 奇譚怪話續出

太公望……金伯岳
거듭말할必要도업는 有名한 中國史譚

행주치마……誠一
權大將의 引率한 一枝軍은幸州山城에 웅어다。나날이 女人들이 압치마에 돌을싸서 山꼭다이에 올려 이룩한 石城 —壬辰亂中 가장 痛快한一戰이 幸州大捷이 아니엇든가。

痴叔의先見……鄭文澤
亦是 壬辰亂中에 생긴일이다。어떤날、한怪僧이 柳成龍大臣을차저왓다。怪僧이 차저올것을미리알은사람이잇섯스니、柳政承의叔으로、어리석기짝이업스므로痴叔이라이름지은사람이다

盟誓한번……延星欽
盟誓는 男子에게잇서서만 구든것이아니다。女子의 한번盟誓는 金石보다 더구드니 萬進士의幸運은 여기서 생겨난것이다

三國遺事……一然

最近六十年의秘錄……尹孝定
古文獻의現代語譯으로、一字一句를허수로하지안흔名譯이다

色紙版其他

京城鍾路二丁目四五 振替京城一八三八 野談社

문둥병

癩病

癩病講話

癩病은顏面이검붉고부어(癩風)과가려(斑點)이생겨手足痲痺、指曲眉毛拔、身體에버레가기는것가튼感이잇고눈물이나고코가미고남의눈에얼는띄우는病이다 도한편神經癩、麻痺癩는남이모르게苦惱하는病으로 一生동안못낫친다고 或은五年十年각가지로良藥을어더服用하여도낫지안코 專門醫師의治療도効驗이업시 一生을癩病으로맛치게되어 그家庭에는患者가年年增加하는것이다 ... 多幸히오늘까지十年、二十年동안이病으로苦惱하고各種의藥을服用하야도全快치안흔사람이(皇漢家傳藥)을服用하야全快하얏다고感謝狀이만히옴으로 只今그病狀과그동안에服用中의感謝狀及(病理說明書)를無代로郵送하고잇스니 本病으로괴로워하는분은 遠慮말고申込하라 ... (皇漢家傳藥)의內容과說明書及全快者의病狀及感謝狀을보시면 實로이世上의幸運幸福者가된다

大阪市東淀川區新川若町百
大福堂本店

釜有望한

軍手의製造

專屬製造家募集

十一年度高速度能率機

最新으로本社專屬者에만提供함 時代에뒤지는 ... 各面一名限하야 新規開業者에對하야 資金의補助的特別割引으로써 優先募集하므로 이好機를逸치말고 申込하시요 副業又는專業을希望하는분에 申込次第 詳細한案內書無料로郵送함

豊國軍手京城營業所
京城府西大門町一丁目十九番地

印刷物經濟化
これだ
思ふ樣に
宣傳印刷物がすれる
商戰に、事務に、教育に
社交に 本器を御推奨ス
(カタログ進呈)
特約店未設地募集
定價五圓ヨリ 百圓マデ
大阪市日本橋四丁目
太陽商會
東京 京橋 支店

器械鍼療法講習會開講
奧村療法學院
大阪市西區江戶堀下通五丁目

警察內部의行政에 劃期的改革斷行

圖們會議로國境對策에이어 對內的三大方針決定

삼교(三橋)경무국장은 착임한후 경무당국이 당면한 중요현안의대책과 경찰행정개혁에 대하야 조사연구하고잇든바 현하조선경찰의 중요문제인 국경경비문제와 국경민수대책에 대하야는 일전도문(圖們)회의에서 만주국과 협의한결과 근본적해결책이 결정되얏슴으로 이번에는 다시 경찰내부의 행정에대하야 개혁을 단행하고저 다음과가튼 세가지의 방침을 결정하고실시하게되엿다 한다

一、명령하기전에 몬저 철저하게민중에 정통할때에 모든 정세에잇서서 노한다든가또는명령하기전에 몬저민중에게 성의를 피력(披瀝)하야 경찰이 하고저하는바를 민중에게 리해식힐이필요하다

一、상의하달(上意下達)상관의진정한의사를 하달하야 민중에게 맛치게 하려할때에 중간에 잇는경관이 참되게 열심히 그일에 종사는하나 상관의진의(眞意)를 그대로해석지못하고 자칫하면 곡해하는경우가 만흐니 이것을 고처야겟다

一、하의상달(下意上達)민중의의사와 소리를상달하는것은 경찰행정상 가장중요하고 필요한일인데 이것이중간에서 끈어저소멸되는 경우가잇서서 민중으로보면상사(上司)의 진의를 의심할경우가잇다 이런경우에 상사와 직접만나서말하여보면 잘알게되는경우가잇는데 이것은 중간에서 경관이 민중의 소리를 상관에게 잘 전달치안는 경향이잇다

……든중 거동이 수상한 청년한명이독이며 안저서 편지를보고잇……

今曉大邱에大火

三戶六棟을全燒

損害는約七萬圓、火因은화덕 商店街로一時混亂

【大邱支局電話】 이십오일오전두시오십분경 대구부시장정(市場町)구십칠번지 잡화상정덕현(鄭德鉉) 방에서 발화하야 순식간에불길은 동상점목조이층집다섯채에 번지어 전소케하고 다시 련접한잡화상 김덕수(金德秀)상점목조이층한채를 전소하고 이어서 련접한 전무(田畝)상점도 반소케한후 동네시에 소방대의 진력으로 진화되엿다 (손해는) 정덕현 상점이 건물과 상품을 합하야 약오만원 김덕수 상점이 일만삼천원 전무상점 이삼천원 가량으로 손해총액은 삼호륙동(棟)전소 일동반소에 륙만칠천원가량이고 화재보험은 세상점이 모다가입하엿는데 액수는약오만원가량이라한다 그리고 화재원인은 전긔 정덕현상점의 화덕에서 잘못되여 불이난것이 유지(油紙)에 부터옴기어 그처럼 타게되것이라고한다

吳昌順에求刑대로 無期懲役을言渡

嶺城駐在所襲擊犯

【咸興】지난대정십일년구월이십오일 함남삼수군 호인면(三水郡好仁面)령성주재소(嶺城駐在所)를습격하야 송정순사(松井巡査)등 삼명을살상한 광정단(光正團)의 간부 오창순(吳昌順)(三〇)에관한 대정팔년도제령위반등여섯가지죄명의 언도(言渡)는 이십일일 함흥법원에서 소산(小山)판사주심 대정(大町)검사의 관여로열려 판사로부터 구형과가티 무긔징역의판결언도가잇섯다

李仁行에게 原審대로言渡

소위룡산적색로동조합사건 관계자 함남삼수군삼남면 중평리(三水郡三南面仲坪里) 리인행(李仁行)(三〇)에관한 복심언도공판은 이십오일오전열한시부터 경성복심법원에서 적(狄)재판장주심 의전(依田)검사관여미테열렷는데 재판장은 역시원심대로 징역이년륙개월(이백오십일미결구류통산)을 언도하엿다

電車에치여重傷

이십오일아츰 아홉시 사십분쯤되여 동대문밖 경성부채석장(府採石場) 입구에서 손구루마를끌고가든 로인이 길을건너려다가 때마침동대문으로 향하든 전차와마주처 인사불성에 빠젓다 이로인은 신당정(新堂町)사는 엄룡대(嚴龍大)(六〇)로 곳부민병원에 다려다가 응급치료중이나 원체로인이라 생명이 위독하다고하며 가해자 전차운전수 박수영(朴水營)(三〇)은 소관동대문서에서 취조를받고잇다

江邊의殊常한靑年

【永登浦支局電話】 지난이십일경 영등포(永登浦)경찰서 고등계의 황형사(黃刑事)가 경성부영등포출장소 부근제방근처를 순찰하

今年度노벨平和賞

南米에는最初로 亞爾然丁外相에

昨年度것은獨逸人에게授與

【오슬로＝廿四日發同盟】 일천구백삼십오년도의 노벨평화상은 독일사람 오시쓰키씨에게、또일천구백삼십륙년도의 노벨평화상은 알젠친외무대신 라바스씨에게 각각수여되엿다

그런데 오시쓰키씨는 유명한 평화주의자로서 일즉이 나치스정권의 기휘에촉하야 파펜뿌룩에잇는 정치범수용소에수용되엿다가 최근에 석방되여 목하척수결핵병으로 중태에빠젓다고전한다

그리고 라바스외무대신은 세계평화에 진력하엿고 특히 볼리비아와 파라과이사이에 분쟁이생겻슬때에 그에대한공헌이 만헛슴이 인정되엿기때문인데 남미에서 평화상을 바든것은 라바스씨로서 최초의 일이라한다

오시쓰키氏로 獨逸政府抗議

【伯林廿四日發同盟】 독일사람오시쓰키씨에게 일천구백삼십오년도의 노벨평화상이 수여됨에 대하야 독일정부에서는 비상한 충동을 바덧고 히틀러총통은 정부수뇌부와협의한결과 독일정부는 오스로ㅣ의노벨상위원회에대하야 인도적기관(人道的機關)을 당파적정치(黨派的政治)에 함부로 악용하는것은 국제정의(國際正義)에 위반된다는 리유로써 엄중한항의를 제출할는지도 알수업는정세라한다

窃盜犯人에게 無罪를言渡

【釜山】경남울산군 울산읍교동(蔚山邑校洞)최봉달(崔鳳達)(二七)에관한절도피고사건은 지난이십오일 오전십시부터 부산지방법원에서 염전(鹽田)판사담임 대국(大國)검사립회와、김준원(金埈源)변호사렬석으로 개정하얏는데 동사건은 금년삼월이십일오후두시경피고의 동무인 리달우(李達雨)와 함께 울산읍 낫잠을자고잇는중에 리달우의소지금 일백사십일원이 분실되엇는데 피고가 절취하얏다는 혐의로 울산경찰서에 인치되어검사국을 거처 공판에회부된것인데 사실심리에 들어가 피고로부터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울산경찰서에서 자백한것은 사람으로 참아견딜수업는고문으로말미아마 허위자백한것이라고 진술하얏는데 립회검사로부터 경찰서와 검사정의 취조

思想犯保護觀察法

來月廿日부터實施

三個所엔觀察所、五個所엔支所를設置 所長은專任、支所長엔檢事兼任

조선사상범보호관찰법은 방금법제국에서 심의중인데 오는십이월십일경에 공포하여가지고 십이월이십일부터 실시할터이라한다 보호관찰소는 경성 대구(大邱)평양(平壤)의 세곳에 설치하고 지소는 함흥(咸興) 청진(淸津)신의주(新義州) 광주(光州)부산(釜山)의 오개소에 개설한다 그리고 소장에는 전임보도관을 판검사중에서 임명하고 지소장은 검사의겸무로 하게되다한다

조사에 의하면 범죄사실이 명백하다고 증여일개년을구형하얏스므로 렬석변호사 김준원씨로부터 물적증거가업슬뿐아니라 경찰의고문으로 허위자백한것이사실이라고 무죄를주창하얏던바 재판장으로부터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리유로 무죄를 언도하얏다한다

二十靑年自殺

原因은調査中

【報恩】보은군속리면 장재리압산에서 이십세가량된 청년사체(死體)를발견하고 즉시지난십팔일에 당지보은서(報恩署)에 계출한바 안등사법주임(安藤司法主任)은 중촌(中村)조주(造酒)양형사를 대동하고 현장에 출장하야 검시한바 그는 쥐잡는약을 먹고 죽은것이 판명되얏스며 본적은 청주읍수정(淸州邑壽町)표춘룡(表春龍)(二〇)이가 약일개월전에 경성을간다고나가서 그와가티 되것인데 죽은원인을 조사중이라한다

新義府內外에서

强盜兩件이連發

一名은格鬪끄테逮捕、一名은逃走 嚴寒압둔國境不安

【新義州支局特電】 엄동을압둔국경신의주에는 강도두건이 발생하엿다

이십삼일밤 신의주부내진사정(眞砂町)에잇는 동익상회(同益商會)에 강도한명이 침입하야 그상회주인 공익성(公益星)씨에게 단도를 드려대고「돈을내지 아니하면 죽이겟다」고 공갈위협하고잇는사이에 그상회점원이 말소리에 놀래깨여 강도의 뒤로부터 덤버드러서 단도를 뺏고 도망하랴하는강도와 격투를하야 간신히 붓잡엇다한다

그런데 강도는 봉천주길정(奉天住吉町)에거주하는 김영하(金永河)(三〇)로 목하 신의주경찰서에론치하고 취조중인데 강도에사용한 단도는 봉천에서구한듯하며 강도질을 하기위하야 일부러 신의주로침입한 계획적범행인듯하다한다

◇……그리고 또강도사건한건이잇스니 지난이십사일 오전세시경 신의주부외락원동(樂源洞)의 다사도(多獅島)철도공사장에 강도한명이침입하야「돈을 안내노호면 죽이다고」협박하고 현금십칠원과 손목시계한개를 강탈도주하엿는데 범인은 목하조사중이라고한다

이와가티 하로동안에 강도사건이계속하야 두번이나 발생하엿슴으로 엄한을압둔 국경의인심은 매우공포하다한다

老少合作窃盜團

龍山署에서一網打盡

로소합작의 절도단――벌서부터 룡산서원이 부내청엽정(靑葉町)일대에잇는 음식점、여염집가가집들에서 도난사건이 자조이러난다는말을 탐문하고 그범인을 은근히 수탐하고잇든중이든바 이십삼일저녁때에 이르러 일정한주소가업시 떠도라다니는 최광업(崔光業)(三〇)정경덕(鄭敬德)(二〇)박명의(朴明義)(二〇)최대길(崔大吉)(二〇)윤병모(尹炳模)(二九)등 다섯명을 체포해다가 엄중히문초한결과 과연 나이가 제일만흔 전긔 최광업이가 대장이되고 정경덕이가 중두목이 되여 그밧게 세명을 시켜서 청엽정을 중심으로 구룡산일대를 휩쓸다시피 도라다니면서 금부치 옷가지 현금들을 닥치는대로 처다가 술로 색으로 호탕하게 랑비해오든사실이 드러낫는데 그금액이 수천원이라한다。

……승으로 본서에인치 하여다가취조한결과 그는 본적을 강원도(江原道)에두고 함남풍산군풍산면(咸南豊山郡豊山面)에 거주하는 조창호(曺昌浩)(三八)(假名)로 이달초순 풍산경찰서에서 제이차 전세농민조합의 검거에 착수하자 교묘히 경계망을 뚤피하고 경성으로도주하여온것인데 금이십오일 함남풍산서로압송하엿다고한다

旭町에小火

이십오일오후 영시경 시내 욱정(旭町)일정목이십팔번지 아부정야(阿部正野)집 이층에서출화하야 그집이층을 태워버리고 갓든십오분에진화하엿다 원인은 관할본정서에서 조사중이며 손해는약오백원가량이라한다

"스피드"愛好時代

航空旅客이붓적增加

十月中四處飛行場의乘降數

지난 시월한달동안에 조선안에 네곳비행장에서 비행긔로 오르고 나린 사람의 수효는 합게 삼백구십오인 이엿는데 비행긔를 타고서 떠난사람은 이백열명 도착한 사람은 일백팔십오명이엿다 작년 시월의 송객수에 비하면 오십여명이 증가한 세음이라한다

厥女의歡心사기

百貨店에서窃盜行脚

버젓한紳士가白晝大膽한犯行

이십사일오후세시경 시내본정(本町)삼월(三越)백화점 삼층에서 물건을훔치고잇는 중년의신사한사람을 마층순찰중의 본정서원이 발견하고 그서에인치하고 취조중이다 그는대련시대흑정(大連市大黑町)박진구(朴鎭九)(三一)(假名)으로 현재시내모시보사(某時報社)간부의지위를 가지고잇스면서 삼월백화점을위시하야 근방다른백화점에서도 가격삼십원짜리의「핸드빽」양품 등약이백원가량의절도행각을하고다니엿다고한다 그리고그가전긔와가튼 범죄를범하게되리면에는 역시묘령의 녀성이잇섯다고하며 수개월전부터 시내모기생과 정다운사이가 되여지자 그의 환심을 사기위하야 그는여러가지 수단을써 오다가 끗끗내 절도라는 빗두러진 인생(人生)코ㅣ스를 밟게까지 되엿다고한다

異域에서發狂

본적(本籍)을 경북청도군대성면(慶北淸道郡大城面)에두고、현재까지 만주리경찰청(滿洲里警察廳)용원으로잇든 리종대(李鍾大)(二六)는 지난 삼월달부터 황달(黃疸)에걸리여 이래그곳 병원에서 치료중 이달초순경부터 정신에 이상이생겨서 폭행을함으로 이십사일 아침경성에송환되여 경성부사회과(京城府社會課)의보호를 밧게 되엿다고한다

"梅鉢"火災는 放火疑惑濃厚

鍾路署에서嚴重取調

일전종로일정목 바로파출소등 뒤편에잇는 일본국수집 매발(梅鉢)의화재는 일시실화인 듯하다고하엿스나 소관종로경찰서에서는 원인에대하야 미심한 점이잇서서 사법계 지전(池田)부장이 주로세밀한조사를하여오든중 실화설의근거가 극히 박약함뿐더러 방화의혐의가 농후하야 이십사일밤부터 동서사법계형사실은 긴장한빗을띄고 활동을개시하야 전기 국수집고용인등을 인치하고 엄중한취조를하고잇다 내막에는 여러가지복잡한 이야기가잇는 모양이다

乃父의命令을 죽엄으로反抗

【牙山】충남아산군온양면장존리(溫陽面長存里)에거주하는 고성준(高性俊)(二二)은 지난이십삼일 오전칠시이십분경에 경남철도긔관차 제이십륙호가 광천으로부터 천안까지진행하는도중 온양온천남산정류장을통과할때에 돌연달려들어 현장에서 참혹하게도즉사하엿는데 그원인은 전긔고성준이가 수년전부터 곡류상을차리다가 다소 손해를보고 금번에도 벼장사를하려고 자긔집에서 지여노은 농작물을방매하여 그돈으로 장사미천을 하랴고한것을 자긔부모가 불응함으로 자긔마음대로 하지못하는것이 분개하야 그와가티 철도자살을하엿다한다

价古前川間試運轉

만포선개고(价古)전천(前川)간 신설선로는 요사이공사가 끗낫슴으로 철도국에서는 오는십이월 일일부터 운전할예정으로이 실지선로시운전을 하기로되엿다

天氣豫報

概況 亞細亞大陸의高氣壓은 東으로移動하야 朝鮮으로부터 西日本內地에 七七〇미리를示하고 滿洲西部는 氣壓이야트며『오호쓰쿠』海에 優勢한低氣壓이잇다 北滿은흐리고 南滿과 朝鮮及 西日本內地는晴 東北地方以北은흐리며 비가오는地方도잇고 눈이오는地方도잇다

豫報 오늘밤京城地方은晴、明日은 날이흐렷다개엿다할터이며 京畿全區도갓다

昨日最高 八度四
同 最低 零度八
今朝最低 零下二度五
今日正午 七度五

運動競技

連二年優勝한 醫專凱旋

同窓들의出迎裡에

九州福岡서열린 第十一回高專아式蹴球大會에出戰하야 저곳의强敵들을 壓倒的으로 擊破하고 連二年優勝의快記錄을남긴 京城醫學專門學校蹴球팀一行十五名은 同校講師李在馥氏引率下에 빗나는優勝旗를膳物로 今廿五日午後三時十分 京城驛着列車로 凱旋하엿다 驛頭에는 同校敎職員과 및同窓들의 盛大한出迎이잇섯다

卓球聯盟戰

來月四、五兩日間

高麗卓球聯盟主催와 朝鮮中央基靑後援의 第二回全朝鮮卓球聯盟戰은來十二月四、五兩日間 朝鮮中央靑年會館體育室에서 擧行할터인데 參加申請은 十二月二日午後六時까지 朝鮮中央基靑內同聯盟事務所로 申請하야주기를바란다하며 抽籤은 同日午後七時에行할터인바 申請金은每團體에一圓이라고한다

世專籠球遠征團 大邱서全勝

【大邱】世專籠球部嶺南遠征軍一行은 지난廿三日에 大邱啓聖軍을 四十六對十六으로이기고 그餘勢로 廿四日午後四時에는 大邱醫專軍과對戰케되여 啓聖『코ㅣ트』에서 金永濟、崔永浩兩氏審判下에 開戰한바 世專最初부터 優勢하야 十四對五로 前半戰을마치고 後半戰에드러가 大邱醫專軍逆襲猛烈하엿스나 結局廿四對十八로 世專軍이凱歌를올리엇다

京城世專24(1014…135)18大邱醫專

▲出戰選手＝(世專)F 南命錫 尹貞相 C 李德鎬 G 韓文奎 金基泰 尹玉龍(大醫)F 鄭仁德 白命壽 C 李永鎬 G 崔在圭 裵致道

李景錫氏五段에

日本柔道界를觀察中인 朝鮮研武館師範李景錫氏는 今般柔道五段으로昇段되엿다는 京報가 朝鮮研武館에 到達하엿다고한다

運動界人事

▲金日培君(前延專野球捕手)이번 京城府水道課에就職

書籍

東洋書館

新刊案內

德兒 琦弟

求資

東邦化學研究所

東亞無線技術研究所 研究生募集
募集人員 二〇名
受付期間 十二月末日
京城府臨府町四三 電話光九一五番

喘息·神經痛 中風·高血壓
滯血을除去하야 循環을조케하면 낫는다
不治가아니다

今津박사는 숙주분으로 유명한 今津박사의 연구의 원인을 철저적으로 연구

京城婦人病院
院長醫學博士松本秦治 醫師女醫 李敬善
癌科 라디움科
電本局三〇四八二·三八九二番 京城北米倉町九四

二十五日付夕刊紙上에發表한
第一回
森永 캬라멜
大懸賞은當局의忌諱에抵觸되는바잇서 一時中止하오니諒解하시기를바랍니다
森永製品朝鮮販賣株式會社宣傳部懸賞係
一個 五錢十錢
コドモノ榮養 愛用 週間

齒科器械材料金庫
開業記念特賣
內外齒科商會
京城栗園町二八七番地
振替京城二五八五〇番
電(光)六五九番

高級美容化粧料
三好美容液

죽은깨가진女性에게
一大福音!!

女性에게容貌의醜美가一生을通하야不幸의分岐點이놉다는것은洋의東西와時의古今을莫論하고 此世에人生으로태여난女子에게는 한宿命的鐵則이외다 그럼으로 美容은女子에게即生命이오 全的財産이라는것을否認할 者世上에其누구겟슴닛가 이에弊社는威한바有하야 多年間苦心硏究한結果 女性의一生의運命을左右할救世主가 發見되엿스니 이뎍이卽

『三好美容液』!!

滿天下女性들은 이美容液을使用하야 容貌의根本的改造를斷行하시오、그리하야압흐로無限한幸福을 길이누리시요

主治効能 죽은깨、검이、여드름、其他一切의잡티
用法 每日二回式朝夕으로 使用하시되 밤낫이 洗面을淸潔히한後 美容液을 一二次혹은두어번바르시고 其우에三好クリーム를 바르시면 効果百パーセント!
但輕症者는九十度、重症者는百度를使用하시오

定價 七十、一圓

販賣店、全國各地百貨店、有名藥店

朝鮮·京城

三好化粧品株式會社
電(光)一七二七番
振(京)一五九五八番

림질 대하증 냉병엔

最新劑

구로벨 이제일이오

림질에대하야

만타만타하여도 림질대하중 약갓치만은 약은업다 수천가지는 될것이다 그러나조선서는 다ㅡ쓱드러가고지금은 그자체가업다 십히 드물게되엿다 그야말로 혜가뜨면 별이업서지듯키 전세계에서제일조흔약 「구로벨」이나온 뒤로는거의 다ㅡ엽서젓다 조선서 림질약으로 원장광고내는데는 「신성당」 뿐이오 「구로벨」 뿐이다。 왕우에또왕은업다 무엇보다 제일감사장이 증명하지안는가 위대하고 굉장하도다 구로벨의 힘이여 미구에전세계의 임질대하중은 전멸할것이다 별별큰소리 다ㅡ하야도 환자가보낸감사장은 업지안는가 당신이무한히고통하고 애통하는꼴을볼수업서이 「구로벨」을 하날에서 내리신것이오니 지금 곳 꽉 잡스시오일각이 급하오니 이런분은곳쓰시오

남녀 만성림질부인 적백황대하중 남녀냉병 오좀 소태 월경 고르지못한데며 하협등으로 별치료를 다하여보고 별별약을 다써도 백약이무효하야 돈만 허비하고 근치안되여 고통하는분은 수저할것업시 제일먼저 세계 제일의 구로벨」을 쓰시오 참신기하고 틀님업시 낫는자신이잇스며 환자의안심과 신용을 엇기위하야 만일에무효면 절대책임지고 드리오니 일각이라도 빨니 지금곳쓰시오

림질치료원리 (治療原理)

림질은고노곡경이라는림질균을가진남녀의성교(性交)로인하야그균이생식기로드러가서점염번식하야생기는병인대림균은특히강렬(强烈)하야뿌리가(淋絲)성하게뻗처서번식하는성질임으로날이갈사록신체내부로기피드러간다그럼으로방광염(膀胱炎)고환염(睾丸炎)「산증」자궁내막염가튼위험한중세로변하기쉽다 그런대병균이사람의피부로드러오면혈액(血液)에잇는백혈구(白血球)가그병균을막어업새기위하야곳맹렬히싸홈을하는것인데만일그균이강하면백혈구가도리혀죽게되나니이죽은백혈구가곳고름이라이와가리신체속에는균을막어업새는힘이천연으로잇슴으로조곰만힘을도아주는약이합리적(合理的)으로드러가면당연히병균을전멸할수잇다이러한병리가(病理)판명되야다년연구한결과림질치료원리(淋疾治療原理)가발견되엿다

一、림균은뿌리가깁히박히는성질임으로내부로부터그뿌리를아조업새지아니하면조곰에새싹이다시나듯이병이다시도지게되야거근하지안한다

二、사람의신체에는천연적으로혈액중에백혈구가잇서서균을막어업새는힘이잇슴으로살균되는약제가조곰만드러가면균이깁히못드러가게할뿐아니라전부몰사식힐수잇다

三、위장으로흡수아니한약은 염증(炎症)을아물게못하여 도리혀연약한점막을(粘膜)상하게한다

四、약이장으로흡수되여신체각부를거처방광을통하야요도에까지이르면병균을완전히전멸식힌다

五、외치로국부에넛는약이나주입세척하는법은잘못하면병균이안죽고도리혀약을피하야 점점속으로드러감으로위험하다하물며깁히박힌병균은절코전멸되지안하야 다시재발되고또한그병균은더욱강하게되여악성으로 변한다내복약을먹어생리작용으로신체내부에흡수되여속속드리뱁힌균과뿌리를말녀죽여야된다약이혈액중의백혈구와 합력(合力)하야천하무적(天下無敵)의 강병이되여아모리완고악성의림균이라도씨도남기지아니하고전멸식힘으로다시후환이업시깨끗하게된다결국합리적고귀한약으로된내복약구로벨을써야한다

구로벨 일주일분이 오원 이다(일주일분이 오원이라는약은 내외국을물론하고드물다

다른약은대개 一、二원으로부터 二、三원이다 왜그러냐하면 구로벨에는 엇기어려운고귀한약제가만히든고로 그러타

결국 병이 속히 치료되는것이다

갑싸고오래먹는약은 효력이업스니 결국갑시싼것이아니라병만점점더심하야지고 돈만거저내버리고만다병은일초를다투는것이다

⊙구로벨의특장

효력최극상전세계에서 제일유명한독일약 「헤루미또ㅡ루」도만히들엇고 세계전신발명약 제만합리적으로 만히드럿답니다

一、약효가강대함으로여러해된고질특히 재발한 만성림질과 대하중은 물론림독성으로 된 박광염고환염산증섭 호선염자궁내막염란소염에잘듯고

二、다른약갓치지리하게 오래안먹고 만급성간에 일주일내로효과를보고

三、림질약치고 위장이이안상하는약이업는대 구로벨만은 조곰도안상하고 다른부작용이 업슴으로 위장약한분이만히먹어도 트적하나 안난다는말은효험본여러분들의 청송하는말삼이오

특제 구로벨의효능

남녀만성림질(男女慢性淋疾) 림독균대하중(淋毒菌起因滯下症=)并製外、腺炎) 여자오좀소태(女子消渴)、관절염(關節炎)자궁내막염(子宮內膜炎)요도염(尿道炎)고환염(睾丸炎)방광염(膀胱炎)섭호국염(攝護라팔관염(喇叭管炎)……并製外란소(卵巢炎)림독성총종(其)

만일약을 이상일쓰시와 특이성의체질로(特異性體質)병에안맛거나 광고와틀리는 점이잇거나마음에안마즈거나현저한특효가 업거든 약을곳 보내시오정구대로하겟슴니다

약	가
완고악성에	구원
만성중증에	오원
대하기타부인병에	삼원
급성소	오원
오좀소태에	삼원

지방송료	
선금	십오전
대금인환	삼십오전
당일송달	

오원·삼원다ㅡ일주일분오래되고재발된데는구원짜리를쓰시오

發賣元 京城府西大門入口 (제일큰백옥양관)

神崎神聖堂藥品直輸入株式會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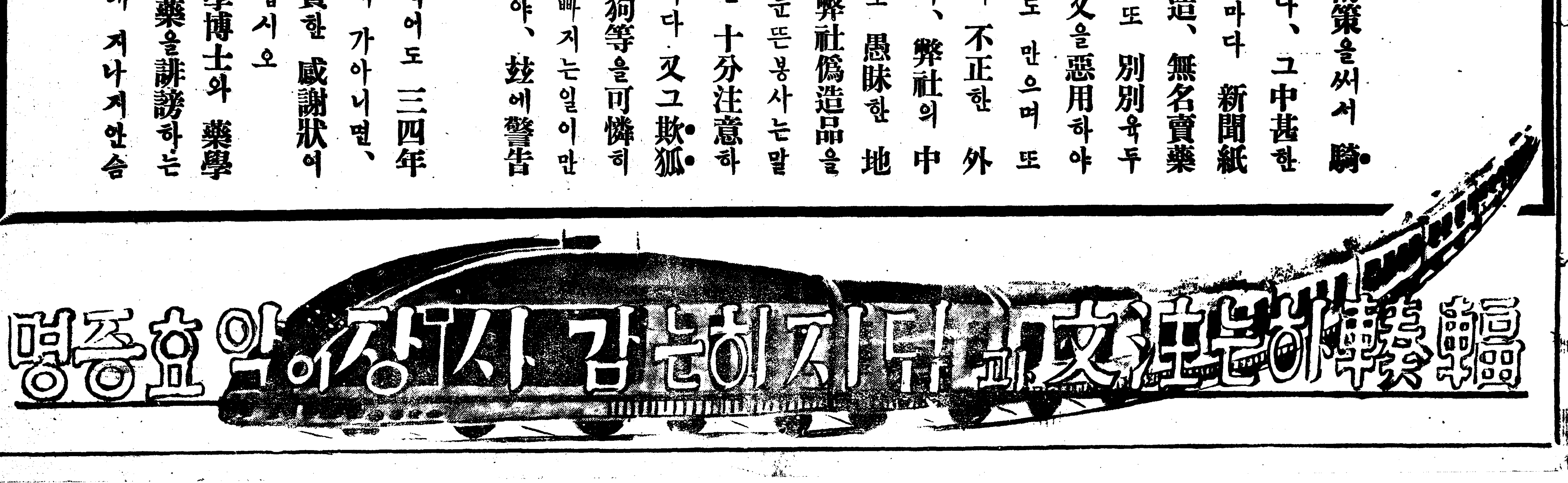
電話光③三三四番 振替京城四九五〇番

警告

大小不正賣藥商等이奸惡한術策을써서 騎虎之勢로全鮮을 跋扈跳梁한다、 그中甚한者는 弊支社代理店、特約店마다 新聞紙上에서 보고 쪼차 다니며僞造、無名賣藥을가지고 金錢을 詐取하며 또 別別욕두가지 꾀를 내여거짓말 推奬文을惡用하야 計劃的大○○를 敢行하는者도 만으며 또는、廣告를 만히못내는者들이 不正한 外交員들을 地方으로 派遣하야、弊社의 中傷誹謗을하면서、甘言利說로 愚昧한 地方人을속이는者가 만타 또 弊社僞造品을가지고、싸게파는者도만타 눈뜬봉사는말할것도업거니와 눈먼봉사는 十分注意하지안으면 欺狐에게 홀려갑니다 又그欺狐等의 權謀術策에너머간、走狗等을可憐히녁이는同時에、各種弄絡에 빠지는일이만흠으로 惻隱之情을禁치못하야、玆에警告注意하나이다、

「무슨물건이든지 살때는、적어도 三四年을繼續的으로、광고를내는데 가아니면、絕對로 信用마시오」또 確實한 感謝狀이업스면다ㅡ거진말노알아주십시오

洋藥은 先進世界各國의 醫學博士와 藥學博士가 公認한 藥이오니 洋藥을誹謗하는者들은 남의 藥을中傷하는데 지나지안슴니다



요즘流行되는 무서운小兒病 (三)

그다음은 소아마비(小兒痲痺)

城大小兒科研究室 李聖鳳

열병 아이로부터 아이에게 전염되므로 환자에 접촉 하는것을 피하며 조석으로 양추를시켜 입안을 청결히하는것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치료법에 대하야 여러분이 알아두실것은 신열이 내린뒤도 아못조록 환자주위은 안정케하고 자극성이업고 소화되기쉬운 음식물을주며 두주일뒤부터는 마찰, 전기치료를하지만 어떤것이던지 오래가므로 이점을 잘양해하시고 오래동안꾸준히 치료받는것이 대단히 필요하며 큰아이면 환자자신도 마비된팔다리를 운동케해야됩니다 지금말슴한것이 소아마비중 척수성소아마비인데 뇌성소아마비는 그원인을 달리하며 증상도다르지만 치료에잇서서는 대동소이합니다

◇소아마비

소아마비 이병은 감기비슷하게아타가 혹은 아무이상업시팔다리를 못쓰는병인데 한번걸리면 대단히오래가는병일뿐더러심한때는 병신이되던지 혹은사망하는 실로 무서운병입니다。

그런데 이병은 두종류가잇습니다 그하나는 뇌성소아마비라하는것인데 뇌를범해서 오는것이고 다른것은 척수성소아마비즉척주안에잇는 등골이상해서 오는것이니 우리들이 보통소아마비라고 부르는것은 뇌성이아니고 주로 척수성입니다。

이소아마비를 처음발견한사람은 하이네・메진(씨)인데 이사람의공로를표창하기위하야 이사람의이름을부처 부르기도합니다

이병은 흔히 세살이하의소아를 범하는 일종급성전염병인데 구미에는 녯날부터 가끔 대소류행이잇서 그때면 만흔아이들이 본병에걸리게됩니다。 최근의 대류행으로는 저유명한 대정오륙년에궁한 미국뉴욕에서 발생한것인데 그총수약륙만이을 돌파햇다고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조선에는 아직까지대소류행은업스나 산재성(散在性)으로여기저기 발생하는것을봅니다

그러면 이병은 여하히 발생하느냐하면 극히적은 둥굴한균인대 그균이 소아의 코와인후로 드러갑니다。 그래고 전염되는것은 물론 사람으로부터 사람에게 전염되며 가끔 허약한에서 여러아이가 다음다음 발병하는것을봅니다。

이병은 나흘로부터 열흘까지의 잠복기가잇서 그새는아무이상업시 경과하다가 이시기가지나 발병할때가되면 돌연삼십구도내지사십도의 고열이나는동시에 편도선염, 기관지염, 설사, 토하는등의 위장증상이 흔히생기므로 초기에는 무슨병인지 진단하기가 대단히 곤난합니다。

그러나 특유한증상으로 대개는진단하는데 그것은 피부가과민해져서 피부에 손대는것을 대단히 실혀하며 또 손발등으로몸을 움지기면 아퍼합니다。 이점은 대개어머니가 속히 알아가지고 우리에게 말해주시며 몸시걱정하는것입니다。

이외에 아이가 땀을 만히흘리는것도 본병의특유한점입니다

이와가튼 초기증상이 잇슨뒤하로 이틀지나면 본병의 특유한 마비가옵니다。 지금말한 초기증상이 업던지 혹경할때는마비가와야 비로소 알게되는때도가끔잇습니다。

우리는 환자측으로부터 이런말을 가끔듯는데 어제까지 고열이잇고 그외에는 아무이상이업섯는데 아츰에보니까 팔다리에 기운이업다고 또는섯든것은 어제저녁까지는 잘놀고 아무이상업시 잘잔아이가 아츰에깨서보니 마비가생겨 기는아이가기지를못하게되고 서고 것든아이가도모지 서고것지를못해서 부모의 걱정을 서늘하게하는때도잇습니다。 마비는 사지(四肢)특히 다리에 제일만히오고 그다음은 팔 그다음은 허리 배 얼굴 목에도옵니다。

초기에는 광범위에오지만 날이가면 점점축소해지는것이 보통입니다。 이마비는 빠른때는약두주일뒤부터 느질때는 오륙개월지나서 점점회복되기 시작하야 전연완치될때도잇스나 가끔한국부에 다소의장해를 남기는것이 보통인데 발병한지 반년을 지내서도 아직 낫지안는때는 대체회복될 가망이업스며 마비의결과 근육이위축되고 그곳의 피부는 차지며 터중해지면 끔이단축되여 결국 병신이됩니다。

약혼후 사십년만에 비게된 원앙침

신랑신부머리에는 벌서흰서리

약혼한지 사십년! 얼골을대해보지못한지 삼십륙년간— 인간의꼿다운시절은 속절업시 그냥넘겨면서도 그와그이를위하야 참어왓든 남녀가 륙십이넘은 오늘날— 머리엔서리를 이고 드듸어결혼의열매를 맷게된 서양판(西洋版)방아타령 한마듸잇습니다。

이야기의 실마리는 지금으로부터사십변전 서력 일천팔백구십륙년으로 올러가서 풀리기시작합니다 지금결혼식에서 신랑노릇을 하게되는 『쫀・따ー베인』씨는 수물세살의 씩씩한청년 이엿스며 신부? 되는 『한나・한치송』양은 수물한살의 꼿다운 아가씨적 이엿습니다

그때 우연한 기회로 정이든두사람은 구든약속으로 백년해로를 맹서하고 으스름달빗미테서 뜨거운피가 흐르는 소리를서로듯으며 달콤한사랑을 속삭기게 되엿습니다。

그러나 꼬체는 비와바람— 그들의 아릿다운결혼의 리상은 완고한 봉건사상에 억매인 영국의풍속이라 부모들의 반대로 그만 깨여지게되엿습니다 이때에 혈기왕성한청년『따ー베이』는 무엇을 생각하엿던지 바다를건너 먼뉴ー지랜드로 떠나고마럿습니다。『실연한자여! 고향을떠나라!』 한듯것은 시인『하이네』의 말이엿스나 이사람은 실연한것도 아니며 떠나지 마러달라고 못드는 애인을 고향에남겨노코 그만 머나먼 바다저편으로 몸을감추어버렷습니다 그것이바로『따ー베이』가 스믈일곱되던 일천구백변이엿습니다 이로부터 그들은 편지로서 끼끗한 사랑을 계속하얏스며『한나』의부모가 다른데로 시집보내라는것을 물리처가며 이날까지 사십년—인고의세월을 사랑하는사람을위하야 참어왓습니다

그러든것이 요지음『한나』의어머니가 다행?으로 세상을떠낫슴으로『한나』는 바다멀리, 뉴지말리의머나먼『뉴ー질랜드』로 사랑하는『따ー베이』를차저서갓습니다 그리하야 그들은 백발이성성한 옛사람의빰에 손을대이고 너무나 엄청나게 늙어젓슴으로 슬퍼하면서 사십년동안이루지못하엿든 결혼을 신부는 륙십한살 신랑은 륙십세살로가난한우거에서나마 기쁘게 식을올렷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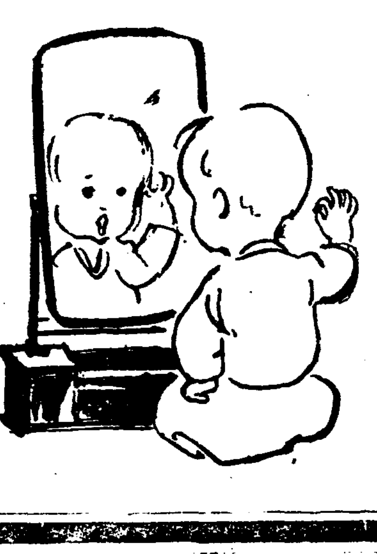
약혼하여노코 일년도참지못하야 후조(候鳥)처름 자리를골려돌아단이는 현대남녀에게 들려주엇스면 서픈이야기이기도합니다

우리차지

"거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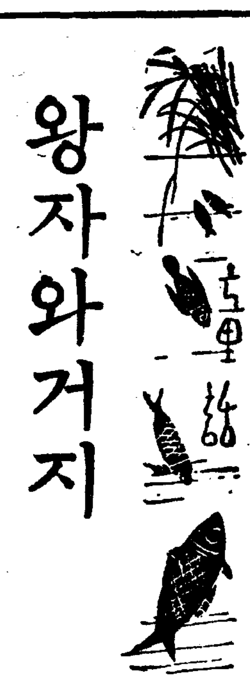
내가 성을내면
거울도성을내고
내가 웃으면
거울도 웃는다。
거울은 정말
마음이곳다。

(글쓰는사람 박세창)



왕자와거지 ㉔

마ー크・토웬 作 崔秉和 譯



여페서듯고잇던젊은놈은 이말을듯자 허리가부러지도록웃고잇스므로 국왕은 그놈을따릴라고하엿는데 칸티ー가—아니 꼿친일홈으로말하면 호프스가 그것을막으면서 말하엿습니다。

『휴ー고! 이놈을가만내버려두게 밋친놈을 건드리면떼는법이라네。 —앳, 작크(국왕을놀으로부르는이름)야! 어서안저라 지금 먹을것을 주마』 호프스와 휴ー고는 서로 무슨말인지나즈막소리로 속사이기시작하므로 국왕은 이보기싫흔놈여페안저잇기가실혀서 멀리떠러저잇는 어둑컴컴한구석으로드러가서 노피한자가량이나쌔힌집단위에가 씨러젓습니다。

그리고 이불대신으로 짚북데기를 덥고서는 뒤를이어떠오르는 여러가지생각으로마음속이 퍽 괴로웟습니다。

점점 날이어두워감을따라국왕은 괴로움과슬픔에 지칠대로지처버려서 어느듯고요히 잠이드러 버렷습니다시간이 얼마나지낫는지는모르겟는데 국왕은 어섬푸레하게 눈을뜨게되엿습니다。국왕은 대체자기가 어느곳에잇고 어떠케되여갈가하고멍거니생각하고 잇스려니깐집웅에서는 비오는소리가우두둑 우두둑 낫습니다。 그소리를드르면서 다시 잠이들라할때 별안간 하하하…웃는소리가 들려왓습니다 이소리에 잠이 정말깨고국왕은대체 어대서 이러케 떠들석어리나하고 고개를처들고보앗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할수업는무레한광경이 눈에 띄웟습니다 부엌편에서는 샛빩간불이 활활타올르고 그불비체빗초여서 지금까지 보힐도드른일도업는 더럽고구저분한 남녀거지떼와 못된놈의한떼가 뺑ー둘러안저서 떠들고잇섯습니다。

몸이호쭉하고 키만커서 바지랑대가티 생긴놈도잇고 얼굴이 험상구재생긴 젊은놈도잇고 눈을붕대로처맨 장님거지와 절눔바리거지도 잇섯습니다。 녀자들잇스든편을보니까 나이어린계집애와 절은부인네와 주름쌀이잡힌 귀신할멈가튼 늙은이도잇서서모다들 입을버리고 큰소리로 욕도하고 떠들기도하엿습니다。 그외에 박작말러빠진 간난애도 셋이나 석겨잇고 얼굴에때가 새까마케안친 소년이두사람 이소년은 장님압잡이노릇을하는 소년이엿습니다。

지금은 벌서 밤이되여서이사람들은 저녁밥을먹은후에 술잔치를버린모양으로 양철통에담은술을 한모금씩 돌려가면서 마시고나서는 듯기실흔소리를 노피지르면서『노래를불너라。 『바쥐』 허구『직크』 허구외쪽발허구먼저시작해라』 하고떠드럿습니다『바쥐』라 고불르는 장님거지는 가슴에걸친 불상한 신세를소나무패와 눈가림붕대를 떼여버리고 뚝뚝이보이는눈을내노앗습니다。 그러니깐외쪽발도 고무다리를 집어치우고 정말멀정한두다리로성큼뛰여이러나드니 다른동무와 가티 노래를부르기시작하엿습니다。

병에꼬즌꼿을 재생시키는법

병에 꼬자 노흔 꼬치 시들거든 아스피린을 조금 집어너허 주십시요 이상스럽게도다시 생생하게 피어 나오리다。

유ー모어小說 姓女씨 (夫)

金熊超 作・畵

結婚의記錄 (10)

『이사람아 애를 나코 안나코그걸 어떠케 임의로 하단말인가?』

『자네가 임의로 못한다면 자네부인께 비방이 잇슬텐데』

『글세, 모르겟는데!』

『그러케 딱잡아떼지 말고 저선용하게』

『정말 몰라。 자네가 정 필요하다면 당자에게 아라봐주지그러치만 그런방법이 잇는사실지안는데!』

『아니야 그방법이 너무 교묘해서 자네가 모를찌모르지。』

『그럴까!』

민보군은 두눈을 모름든고, 한손으로 턱을고엿습니다。 그리고 턱을고인 그손으로 자기의코를 중얼이되도록 주물럿댓습니다—이것이 그청년의『생각하는 포ー즈』

—피임의 필요가잇다면 그것은 부부가 서로 구수협의한끄테 신중히 엄숙히 단행할문제지、책임자의 한사람인 나를슬쩍 따돌리고 제혼자서 이러구 저러구……그것은 대단히패씸한짓!

대빠랍 이런생각이 드럿슴니다。

—신문광고면에나 외국부인잡지에『텃차베사라! 늑쿤돌늑렌트겐피임법』이니『라드심피임법』이니하는 미다시가 더러는에 띄운적은잇섯지만 그런것에 대해서 흥미를 가저보지못한 순진한청년이요, 필요를늣겨보지못한단순한청년이라 자기가비록 그방면에문외한이라할지라도 안해에게 이러다할 단서를 잡을수업는것은 못배군의 말맛다나 안해의 그방법이 너무교묘한 까닭이아닐까? 남편모르게까지 그러한교묘한수단을 쓸필요가 어데잇슬까?무슨 필요로배워두엇슬까?언제배웟슬까? 누구한테배웟슬까?

애인이 자기보다 영리한상십호면 녀자는 그남자에게 신뢰를합니다。 그러나 남자는 그녀자에게 의혹을갓는수가 만습니다。 하물며 안해가자기보다 성(性)에대한 지식이압섯다면 그남편은 반드시 파라케 질릴레이지요? 민보군의 얼골에 나타나는 그의생각 그것은 루ー빈슈타인의 음악을파산으로 표현한거와 가튼것입니다。 입술은경련으로 인해서가버운 진동을합니다 눈까풀이 벌룩거리면서공동과 불따구니로는 경련의류마리스가 이러납니다。 때아닌안면신경장애!다행히 이식적으로이럴수잇다면 민보군도 세계적천재의하나가될수잇섯슬것입니다。

친구들의대화가 그동안 어디까지진행되엿는지 한참만에야설피시 귀에드러왓습니다。

『…의가 너무조와도 애가안든다는데。그러길래 양행업신(洋行業身)이라는것이잇지。두내외가너무조케지내다가 남편이 양행을 한다말이야。그러면 여러달여러해만에 다시만나게 될거아닌가? 오래동안 쉬엇다 다시만나 너무반가워서 그런지 재엇시 애가 든다데』

『반가워서 애가든다는말도 빨간거짓말이야 우리마누라는 갓난애며석하나를 죽이고 웬통속베사비하고 자식이란 애물이니웬수니 하면서 생전안나울거처럼 날뛰드니 웬걸 그달에 제꺼 애를 또배이뎅。너무찌코 까불러서 벌꺽맛느라고 그랫든지모르나 엇쟀든 가장슬픈일이잇슬때에도 입신이 잘되나봐。소박데기들좀보게。얘하나 어터보기가 하늘에별따기보다 어렵고、이 한번만실수하면 제꺽 되는모양아니든가』

『그건 애를 배겟다고 기를쓰니까 그럴께고、엇쟀거나 갓난애젓을뗄때면 입신이잘되는것만사실야。자네부인이 참척을당코곳입신이된것도 그까닭이겟지』

『그럴까? 그럼 우리끄테녀석은 열살먹드락까지 젓을떼지마라봐야지。그러치만 제어미가못장에잇는 소만큼 건강해야한단말이지 그러칠 못하니까 겨정인걸!』

『뭐 그러케 애를 안날라고 애쓸것도업네。디릭다 작구작구낫케。세상에 번식질하는 동물치럼 무서운게잇나。세력부식을시키자면 되는대로나어。디오든란사람은 그러케 구차하면서도 단번에 다섯쌍둥이를 나치안헛나』

『그건 여편네가아니라 암표로찌든가?』

태학군과못배군이 이러케한창짓거리는판에 민보군이 벌떡이러섯습니다。

『가만잇게。우리와이쭈 가사교과서에 유아편이잇슬제는 피임편도 잇겟지!』

우르르 뛰어가서 책이드러잇는 벽장문을벌컥여렷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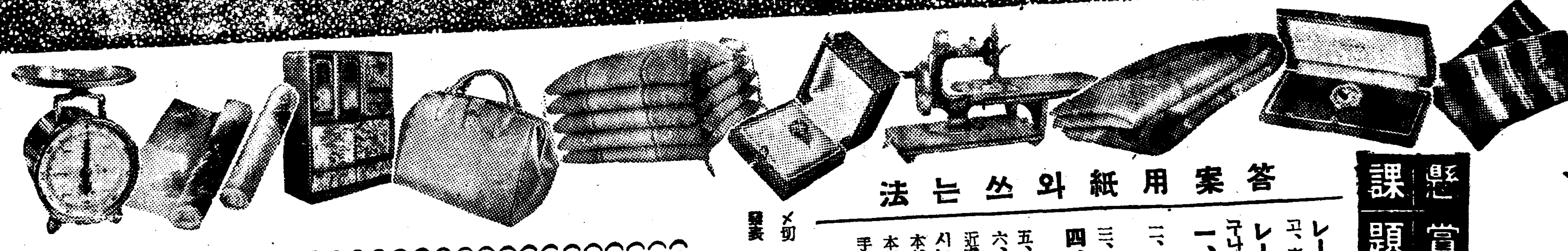
大懸賞? 五百萬名樣

總當り

若肌のまもり

レートクレーム (레ー도구레ー무)

宏荘한人氣! 絶讃의暴風!



懸賞課題

皮荒・벗꺼름을막고四季를通해살결을직히는 ○○○クレーム名을아십닛까?

答案用紙와쓰는法

レートクレーム의空函을그대로떼고、裏面白地에左記順序로記入하고 近處レート化粧料參加販賣店에보내시오(누구나다應募하시오一人이몃장이든지조흠)

一、○○○クレーム (○○○속에글字를너으시오)

二、壹等賞品中希望하는것一點 (イ、ロ、ハ로指定하시오)

三、住所氏名(年齡)

四、レートクレーム를사신店名과場所

五、當身은荒性입닛가脂性입닛가

六、愛讀하는新聞、雜誌名을하나쓰시오

近處レート化粧料參加店에서 愛用하시는여러분의便利를도아、答案을모아서、本舖로보냄으로郵稅는들지안습니다(萬若本舖로直接郵送하시는때는四匁마다三錢切手를貼布하시오

〆切 昭和十二年二月末日

發表 同年三月末日新聞紙上

◎壹等賞 (貳千名樣)

(イ)新型腕時計 壹個
(ロ)新柄御召銘仙 壹反
(ハ)銘仙座布團 壹組
(ニ)寶石入金指輪 壹個
(ホ)輕便卓上ミシン 壹臺
(ヘ)羽二重掛布團 壹枚
(ト)茶箪笥 壹棹
(チ)流行型婦人絹洋傘 壹本
(リ)ボストンバッグ 壹個
(ヌ)羽二重片側帶 壹本
(ル)總桐用箪笥 壹棹
(ヲ)家庭用ハカリ 壹臺
(ワ)總桐文机 壹個
(カ)最新型置時計 壹個
(ヨ)婦人雜誌無料購讀券(壹ケ年分)
(タ)晴雨兼用絹洋傘 壹本
(レ)極上安全剃刀 壹個
(ソ)豪華お化粧セット 壹組
(ツ)特製鏡台 壹臺
(ネ)オートマッサージ 壹個

◎貳等賞 (參千名樣)
レート化粧料美麗詰合函 壹個

◎參等賞 (拾萬名樣)
携帶用レート粉白粉 壹個

◎愛用賞 (五〇〇萬名樣全部)
美麗世界十美人お化粧カード 壹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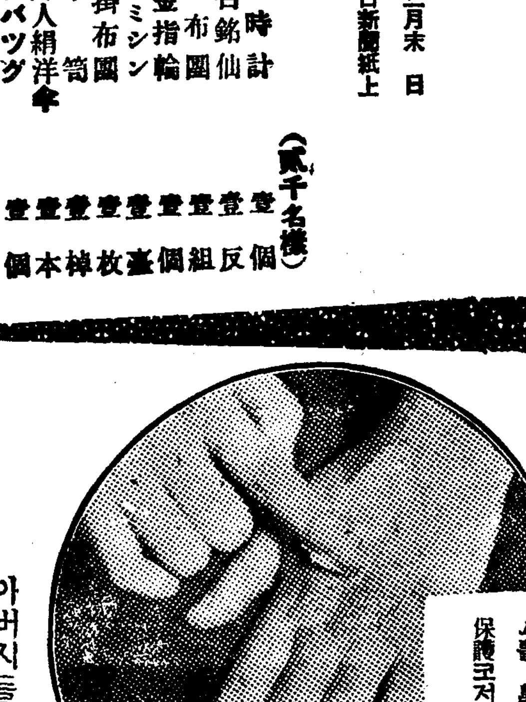
東京市日本橋區馬喰町一 平尾贊平商店 懸賞係

手!

거칠지안는 부드러운 살을願하거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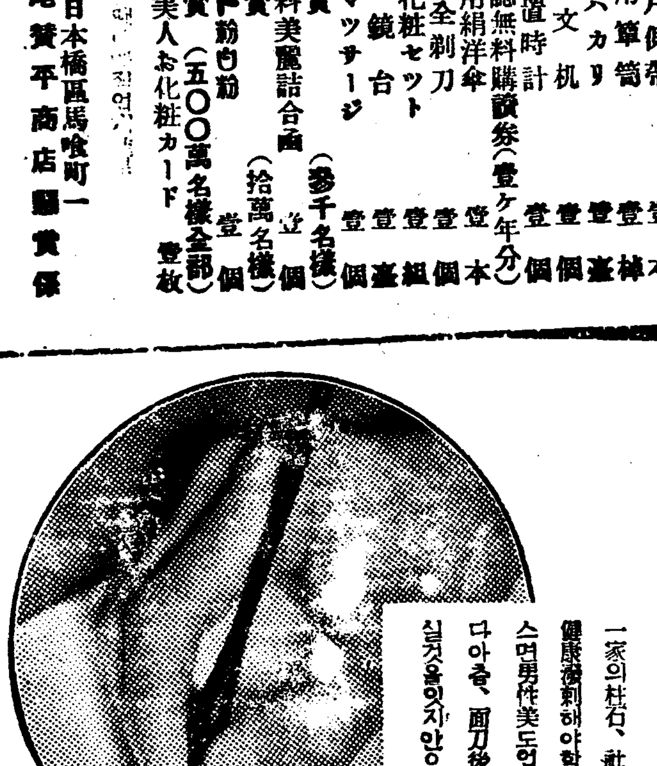
子女들에……

부드럽고귀여운손에피부를荒함 — 이것은더무도알코고쓰리지안습닛가? 아해들은누구나다 戶外에서놀기조화한다 그럼으로한비밀을너무쓰이게되니 レートクレーム를발나서곱게하여주시오



어머니들께……

이제부터치운、晩夕에 家事는큰걱정입니다、同情이갑니다、放心하면은손을거칠게하고、살이터지게만듭니다、家事를다하신後에는고흔끼끗이다근後レートクレーム를 흠씬이시바르주시오、獸皮한살을保護코저!



아버지들께……

一家의柱石、社會의第一線에서 奮鬪하야健康을剃해야할손이거칠고、잔주름만이잇스면男性美도업고、人品에도疑心하게됩니다아츰、面刀後에レートクレーム를、바르실것을잇지안으시기를!

담배考 (六)

담배의禮節

湖岩

酒에는 酒禮가 잇고 茶에는 茶禮가 잇거니와 煙에도 煙禮가 잇다.

담배는 茶飯하는바 아니나 담배는 常喫하게되매 또大衆的으로 普及되엿슴에 잇서서는 그의 禮則도 여러가지가 잇다. 담배가 본대 個人의嗜好로시작되엿스나 社交에서 交誼를 일우켯는바 담배는 酒와茶와 대선으로 客待를 하게되다. 손님이 오면 主人이 반드시 담배를 勸하며 그럴때는 손님이 흔히 담배를 辭讓하다가 바다서 빠는것이 常例이나 이는 배게 朋友間에 通行하는 담배의 禮則이다.

그러나 손님이 年長者가될때는 主人이 담배를 붓처드리되 辭讓이 업시 바드며손님이 年少者가 될때는 主人이 담배를 붓처주는일이 업나니 年長者아페는 年少者가 담배를 빨지못하는 法이다. 長者의아페서 少者가 먹지못함은 아니라 貴人의아페서賤人이 도한먹지 못하는法이다.

담배에 잇서서 少長貴賤의 主客이 넘우나 嚴嚴한것갓다. 當說에는 담배가 初期에잇서서 아무례서도먹드니 한번은宮中에 宿直하는 文臣들이 서로모혀吸煙할새 上監께서 거니시다가 偶然히 이들의 吸煙을 發見하시고 「不美俗」이란 말슴이 계섯스므로 이後부터 尊前에서 敢히 吸煙하지 못하게 되엿다한다. 尊前에 煙氣를 피임도 이미 未安하거든 長竹을 빼칠은 더욱無禮하니까 저절로 먹지못하게되것이엇고 반드시우에서 禁分이 계서서 그리된것은 아닌것이다.

五洲衍文의 賓主吃煙之辨에 李圭景은 적어갈오되 中土와 外人은 吃煙에 上下尊卑와 老少男女의分이 업스되 오즉 我國은 尊貴의前에 卑賤한이 敢히吃煙하지 못하고 長老의前에 年少한이 敢히 橫貫(담배대를 가로빼집)하지 못하니 男女同然하야 그法이 嚴嚴하며 가르치지 안허도 그리하고 식히지 안허도 [illegible]이다 ……이것이 무엇이라고 이름지을가 하다. 그는 어대까지 吸煙에 對한 우리의 俗의 特殊性을 說明하엿다.

대저 담배를 賓主間에 互讓하게됨은 美俗이나 尊卑間과貴賤間에 特殊性이 嚴嚴하게된은 조흔풍을 모르겟다. 年少者가 長老의 아페서 常民이 兩班의아페서 自進해서 吸煙을 讓步함은 오히려 可하거니와 이것을 禮則으로 禁止함은 不可하다. 그러나 옛날은 習慣이 지낫더니 法令이 지낫때에 市民들의 吸煙을 嚴禁하야 담배먹는이를發見하면 그담뱃대를 꺽그며 혹은 犯禁者를 붓드럿다가 笞刑에 處하는일까지 잇섯다. 柳得恭의 京都雜志의 烟禁風俗을 적은 一節에 갈우되 「卑賤在尊貴之前 不敢吸煙 朝士出街 辟除含烟者甚嚴」이라고 하다. 이로보면 尊貴의아페 禁煙하는風은 一百五六十年前에도 嚴嚴햇든모양이다.

그러나 尊貴한이 卑賤한이외合禮를 [illegible] 區別하기로 [illegible] 것을 [illegible] 時도 떠나지 못하다. 그럼으로 貴人이 出入할때 그房에는下賤가 반드시 煙具를 가지고隨從하엿스며 貴人이 [illegible] [illegible] 로有名한 李德懋는 소스로 [illegible] 를지여 [illegible] 吸煙이 [illegible] 大害하니 [illegible] 이 아니며……「[illegible]」라고 婦人 [illegible] 子가 담뱃대를 물고 조차가는것을 가장 미워햇다. 그는 [illegible] 아니라. 士小節을 지여 吸煙의 禮節을 列擧하엿고 또 [illegible] 를 지여 少年의 吸煙하는 弊害를 例擧하엿슴은 오늘날이저 [illegible] 一大卓見임에 服膺하지 안흘수업다. 그 他病者 [illegible] 婦女 [illegible] 말며. 또는 [illegible] 勿吸, 馬上勿吸 船上勿吸, 對戶限(문지방)勿吸等 九勿吸이 잇서서 이런것을 곱자면 吸煙의禮節이 매우 煩擾하엿다.

俚諺에對하야

—旬五誌에보인는典故—

(一) 方鍾鉉

俚諺이라고함은 所謂 俗談이나 文獻에 흔히 俗諺 方言 俚語 들과가튼名稱으로 記錄되어 잇슴을 보는것이다 우리가 글을 읽을때에도 이것을 引用하여 흔히 그것을 修飾하고 또 말을 할때에도 이俚諺을 그中에 加入시켜 그意를 强化하는 役割을 하게하나니 例하면 아래와 가튼것들이다

나는것보아가며 벌떠드린다 (看飛放鷹者試)

나제 난 도갑이다 (晝出鼠賊)

쓴배도 맛 드릿닷

구으게도 매어먹나니

올채이적생각을 못하나니

대장의집에 식칼이 논다

개밥에 도토리

그러면 아와가튼 俚諺이 根本 어떠케 發生되엿슬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보면

아릅의文句를 어떠한 一個人이 單獨으로 製作한것이라고 보아버리기는 어렵다 이것은 數만혼 사람이 여러해동안을 通過하는동안에 그들의 直接體驗에依하야 이것이 發生되고 또 이發生한것이 그後 여러번 使用되는동안에 이사람의 經驗과 저사람의智識이 서로 交入되어 그뜻이 分明해지고 그말이 自然히 洗練되어 오늘에까지 至한것이라고 보는것이 妥當할것으로 안다. 그러므로 一人의作이 勿論 아니同時에 또 어느時日에 起因된것이라고 斷言키도 어려운것이가한다 여기서 다시 한번 도리켜 생각하면 俚諺은 이와 同一하게 作者도 年代도 모다未詳한 그點에서 貴하다는것이그中에 厭然히 包含되어 잇지안나하는것이다 換言하면 이俚諺의真價가 一個人單獨의 主見이아니고 萬人이 共認하고 또感應하는 警句이고 銘言인데 그價値가 잇는것이라고 보아 무방한가한다

이것이 本來 雅言이 아니고 俚諺인만큼 自古로 學者들이이것을 한가하게로써 [illegible] 하엿든이 매히 드믈다 그러나 그中에 [illegible] 는 文章中에는 勿論 引用한것이 거이 그全部라고보아도 過言이 아닐것이다. 이제 여기서 이俚諺을 多少間이라도 蒐集해 노흔책에 旬五志라고하는것이 잇스니 이것을 한번생각해보고저한다 이책은 그일홈의 字意가 말해주는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全部 製作하는동안이 모두 合하야 十五日間을 要하엿슴으로 그와가티 이름지은것이다 그것은이책의 著者인 洪萬宗의 自叙에 依하야 알수잇는것이니 그全文이 만히길지 안흠으로 여기 擧하기로 한다

戊午秋余臥病西湖畫不得接人夜則竟宵無寐呼燈起坐無以爲懷記得平昔所聞詞家雜說閭巷俚語使人寫成一册子首尾只旬有五日耳仍名之曰旬五志云爾欲消景排憂而已難敢示諸大方也 越明年春豐山後人玄默子題

이 叙文에 依하야 우리는 이책의 著作者인 洪于海가 西湖에서 病으로困하야 修養한일이 잇슴을 알수잇고 戊午年이란年代를 우리에게 알려주엇스며 이책의 이름이 그와가튼 出處가 잇슴을 밝혀주엇다

다음으로 우리가 알고저하는것은 著作者의 生存한 時代이다 이책의 著作者인 洪萬宗은 果然 어느時代에 生存하든 人物이엇든가 이것을 한번 알아보고저한다 몬저 東華姓譜를 차저보면 이러하다

洪萬宗 中樞 南陽人 [illegible] 號玄默 著東國歷代總目

이것만으로서 그生年月日조차 알수는 업다. 다만 한가지 그家譜에 依하야 이著者가 靜虛堂洪柱世의 長子이엇슴을 알수잇스니 이것이 이著者의 生存年代를 推測케하는데 가장 有力한 資料라고하겟다. 그것은 靜虛堂洪柱世 그字는 叔鎭이니일즉 申涵의 新編인 農家集說에 跋文을 썻슴이 잇고 號錦에依하면 그文集이 잇다고하엿스나 勿論 아직 나는 그文集을 보지 못한것이 큰 遺憾이다. 何如間 靜虛堂이 孝宗朝까지 生存하엿든 事實을 알수잇스므로 그長子인 洪于海도 어느時代의 人物임을 爲先 推測할수잇다는것이다

「조선어표준말모음」 (19)

첫재、가튼말(同義語)

(一) 소리가가깝고뜻이꼭가튼말

부릅뜨다(形)瞋起 / 부르뜨다
셈(名)計算 / 세음
솎다(動)間拔 / 소꼬다
솥(名)鼎 / 소옹
심다(動)植 / 시므다 / 심그다
싶다(形)欲 / 시프다 / 시브다
잔셈(名)小會計 / 잔세음
짤막하다(形)短 / 짜르막하다
엄(名)言葉 / 어음

●ㅓ의 增減
[ㅓ가 더한을 취함]
무늬(名)紋 / 문
[ㅓ가 줄음을 취함]
가볍다(形)輕(小) / 가비엽다
거볍다(形)輕(大) / 거비엽다
●ㅣ의 增減
[ㅣ가 더한을 취함]
겨드랑이(名)腋 / 겨드랑
다그치다(動)催迫 / 다굿다
다지다(動)擣固 / 다디다
도리지(名)桔梗 / 도랒

두루마기(名)周衣 / 두루막
후리매
버무리다(動)混合 / 버물다
시치미떼다(動)不知貌 / 시침떼다
자리자리(副)關節痛貌 / 질질
[ㅣ가 줄음을 취함]
깨다(動)使孵化 / 깨이다
개다(動)晴 / 개이다
가리다(動)蔽 / 가리이다
내다(動)出 / 내이다
다좇다(動)追隨 / 다조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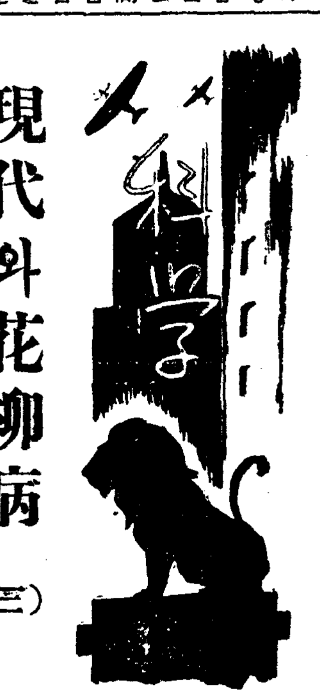
대다(動)接觸 / 대이다 / 다이다
멍울(名)膝蓋結體 / 멍우리 / 멍어리
메다(動)擔 / 메이다
배다(動)孕 / 배이다
별로(副)別般 / 별로이 / 별로히
샛길(名)間道 / 새잇길
솔개(名)鳶 / 소리개 / 솔개미
쉬다(動)休 / 쉬이다
시궁창(名)下水 / 시궁창이 / 시궁치 / 시궁발치
채다(動)不足、補充 / 채이다
재다(動)尺度

재이다
진펄(名)泥地 / 진퍼리
채다(動)使蹴 / 채이다
패다(動)使堀 / 패이다
에다(動)淺割、抹消 / 에이다
(3) 音節의增減
●音節이더한을취함
[처음에더한것]
낟붕나다(動)蓋葬 / 봉나다
버들개지(名)柳絮 / 개지
찌뿌드드하다(形)氣分不好 / 뿌드드하다
한풀치다(動)差界限 / 풀치다
[중간에더한것]
갔나가다(動)價貴 / 갔나다 / 갔가다
경황없다(形)無暇況 / 경없다

경적다
귀인성스럽다(形)可嘉愛 / 귀성스럽다
낚시대(名)釣竿 / 낚대
노오라기(名)纖片 / 노오리
늦장마(名)晩霖 / 늦마
따르다(動)隨 / 땋다
따르다(動)注 / 딿다
딸꾹다 / 달음박질(名)走 / 담박질
더군다나(副)加之 / 더구나
독살풀이(名)貽人害毒 / 독풀이
매기단하다(動)遂成 / 매기다
바수다(動)細碎 / 바다
부수다(動)碎 / 부다
부스럭(名)

부럼
비스듬히(副)婉曲、少傾貌 / 비듬히 / 비틈히
사닥다리(名)梯 / 사다리
살그머니(副)秘密히 / 살그미 / 살근히 / 살고미 / 살곰히
사타구니(名)「살」의卑稱 / 사타기 / 사타리 / 사추리 / 사추기
수두룩하다(形)衆多 / 수둑하다
점직하다(形)心愧 / 점하다
종작없다(形)無定見 / 종없다 / 짝없다
추리다(動)擇取 / 추다
퇴바맞다(動)被退却

퇴맞다
딸딸결(名)大相不同 / 딸결
피딱지(名)粗製楮紙 / 피지
암상하다(形)猜毒 / 암하다
아뭏거나(副)아무렇거나의略語
암커다
엇가다(動)言行不合理 / 엇다
옹스리다(動)縮 / 옹치다
[끝에 더한것]
결곡식(名)皮穀 / 결곡
괴나리봇짐(名)行旅貧粮 / 괴나리
노망태기(名)繩袋 / 노망태
누구(誰) / 누 / 뉘
누구렁이(名)大蛇 / 누구리



現代와花柳病 (三)

京城帝大泌尿器科 金應允

黴毒疹의一般性質

黴毒疹은 其形態가多種多樣이나 其間共通點이有하나니 着色은 銅赤色 浸潤이硬固하며 部位는 早發疹은 軀幹에 好發하고 크기도一定하나 晩發疹은 小數集簇하며 軀幹에서먼곳에 出現하고 環狀、半環狀의配列을하며 色素의消退及增殖이잇고 自覺症狀은 업는것이 普通이나 疼痛이 잇슬때는夜間에甚함으로 夜痛이라합니다。

斑狀黴毒疹又黴毒性蔷薇疹

此는 大小兩型이잇나니 小型이 普通이오 感染後六—七週後에 發生하야 此를早發疹이라하며 大型은 感染後 一—二年後에 發生하야 흔히 環狀을 呈하나니 晩發性蔷薇疹이라합니다。

早發疹은 多少全身障害、發熱、關節痛이 잇스며 主로軀幹에瀰漫性으로 發生하야 圓形又橢圓形의 淡紅色의發疹으로 指大乃至 [illegible] 普通이나 手甲大以上이 되는수잇고 相互의 境界는 判然치아니하나 孤立하야서로 融合치아니하며 四肢까지 蔓延되나 顏面에 發生함은 極稀하고 落屑과色素異常이 無함이 普通이나 或 輕度의 色素 沈着이 生하는수가잇고 晩發疹은 其形이大하며 其數가少하고 環狀又線狀의 配列로 非對稱性이며 數年間 數回의 再發을하자 四肢에 限局합니다。

丘疹性黴毒又丘疹性黴毒疹

感染後 十二週 前 三四個月을 經過한後에 丘疹이 發生하나니 此亦二型이有하야 大丘疹性黴毒疹(早發疹)小丘疹性黴毒疹(晩發疹)에 分하나니 普通만흔것은 大型丘疹으로 小豆大、指頭大이오 銅赤色으로 扁平及球形의 隆起이오 軀幹、顏面、項部、四肢의 屈側에 多發하며 對側性이나 晩發疹은 環狀乃至半環狀의 配列로 지처群集하고 其大小、發生部位、配列等으로 여러가지 名稱이 有하니 異常히 大할時는 巨大丘疹이라하며 且大丘疹의 周圍에 小丘疹이 花瓣形으로 圍繞한時는 房花狀丘疹이라하며 手掌과足蹠와如한 生理的으로角質層이 厚한處에丘疹이發生할時는 其外觀이 乾癬과如하나니 黴毒性乾癬이라하며 兩皮膚面이서로 接觸한곳에(肛門、陰部、腋窩)發生할時는 서로摩擦되며 皮脂汗水等에汚染되야 一種固有의 外觀을呈하나니 此를 [illegible]

膿疱疹性黴毒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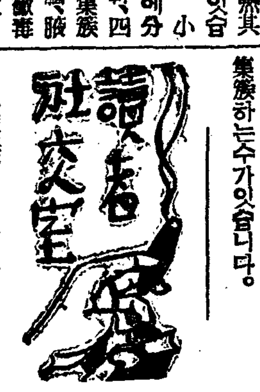
感染後 十五週에 出現하나니 丘疹이變하야 膿疱가되는수도잇고 처음부터膿疱가發生하나니 大槪는 患者의營養狀態가惡한든지 惡液質患者 或은菌의毒力이强한者에依하야 發生하나니 發熱其他의全身狀態가 不良한수가잇습니다 亦是大小兩型이有하야 小型(早發疹)과 大型(晩發疹)에分하며 前者는頭部、顏面、軀幹、四肢의屈側에散在하며 後者는集簇하야 四肢의屈側 肘窩、膝膕、腋窩等에好發합니다 以上의諸黴毒疹은 自覺症狀이 缺如함이普通입니다

第三期黴毒

皮膚의第三期黴毒은 感染後三—六年後間에 흔히 發生하야 時日이經過할수록發疹의數及頻度가減少하며 第三期黴毒疹은 第二期黴毒疹에比하야 組織을破壞하는傾向이 著明하나니 潰瘍을形成치아니한것이治癒될時에도 皮膚의萎縮瘢痕(흠집)이生기는수가 만습니다

1、結節性表在黴毒疹

丘疹又는 黴毒性結節로서 처음에는 皮膚에 埋沒하여잇스나 漸次皮膚表面에隆起하야 半球狀을呈하며 色調는銅赤色으로 孤立的이며散在하는수가만흐나 或集簇하는수가잇습니다。



讀者社交室

▲同生李××보아라! 네가집떠난後로는 네同生과 누나는晝夜로울고만잇다 어머님이 지금아시고 정신업시계신데 아모리慰勞하여도 것잡을수업는形便이다 네의 生死나알엇스면 조켓구나 이新聞을보고 너잇는住所를 곳通知하여라 住所를알리기실커든 어데서무엇을하고잇는지나알려다고 너로因하야 어머님이 도라가신다면 不孝가아니냐 孝道는 못되여도 우리子息들이合心하야 不孝는免하자꾸나

東京市荒川區日暮里町八ノ一三一 高橋方 李鍾圭

▲社交室을 보시는 諸氏께! 朝鮮日報 十一月十四日新聞에 連載小說 雙虹舞 三十六回分(곳의바람十四)을 오려서 보내시든지 그小說이 실린 新聞 一枚를 左記住所로 보내주시면 厚謝를 進呈하겟습니다

利川郡利川邑倉前里 三成紙物舖 尹容完

▲讀者諸位께뭇습니다 權九玄先生의 現住所를알으시는분은速히이社交室을通하야 時急敎示하심을 삼가바라나이다

慶州 許 洸

▲今月十八日本社交室에 文學靑年그립을만들자고 提議한KMK生에게드리나이다 貴兄의말슴에同意하오니 조흔閑暇로운時間이게시거든 京城府寬勳町日月書房으로한번차저주시면 感謝하겟습니다 여러가지로 意見을交換하여보앗스면조켓습니다 貴重한時間을割愛하서서 언제쯤오시겟다는葉書한장만먼저주시면 奔走로운몸이나 좀기다리겟습니다

市內寬勳町日月書房內 CTT生

▲社交室讀者에게 簡單한말을하나 사리려합니다 未安하오나 株式會社わかもと本舖住所를社交室로通하야 傳하야주옵시면참으로感謝함을마지안켓습니다

社交室讀者 HI生

▲讀者諸兄에게 左記講義錄을讓渡코저하오니 合意則請求하시오

一、中學速成講義錄(一團體)
一、十二卷有함
一、一卷代四十錢
一、五卷以上이면多少割引함

京義線新幕驛前 權龍均

▲社交室을通하야! 生은某官廳의 勤務하는젊은사라리맨이온대 本來筆書의趣味가多하며生을速筆或은 速筆者되고들미합니다 면字나毛筆로서速筆者로하야금 代書를希望하시는분이잇스면時間의餘裕잇는限 報酬업시酬應하겟스니 本社交室을通해傳하시면直接合하겟습니다

市內 Ｈ生

新春懸賞文藝作品募集

應募期限은 十二月十五日까지

◇創作短篇 賞=一等一篇 五十圓、二等一篇 卅圓 …… 四百字原稿用紙五十枚以上七十枚以內로하되 한글로 베여쓸것

◇戲曲 賞=一等一篇 五十圓、二等一篇 卅圓 …… 三幕以內 四百字原稿紙七十枚以內로하되 上演할수잇는것

◇詩 賞=一等一篇 五圓、二等若干篇 各三圓 …… 長短은 別로制限업고 一人數篇應募無妨

◇時調 賞=每篇 五圓式 …… 入選若干篇

◇民謠 賞=每篇 五圓式 …… 入選若干篇

◇童話 賞=每篇 十圓式 …… 四百字原稿紙十五枚以上 二十枚以內로하되 한글로베여쓸것 入選若干篇

◇童謠 賞=每篇 五圓式 …… 入選若干篇

◇野談 賞=一等一篇 卅圓、二等一篇 十五圓 …… 百字原稿紙 五十枚以上 七十枚以內로하되 字句를 베여쓸것

◇傳說 實話 賞=每篇 十圓式 …… 그內容은 오즉 소에關한 것으로써 制限하되 四百字原稿紙二十枚以內 入選若干篇

注意 應募된作品은 入選與否를 勿論코 一切返還치안함 / 보내실때는 朝鮮日報社學藝部新春懸賞文藝係라고 쓸것

朝鮮日報社學藝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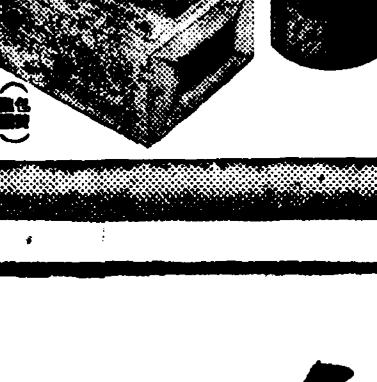
登錄商標

龍角散 (룡각산)

담·기침 천식 근치약

남기침一切 / 만급성성 천식 / 감기기침 / 백일해

치운요새에는 氣候가急變하야 健康할뿐만아니라 空氣가乾燥되어잇슴으로 담, 기침, 천식이 進行케되야 건강하신분이라도 기침의發作에고통을밧게되는때가잇습니다. 더구나평시에도특히 喉가弱하든분은즉 담배는분、천식、氣管支를앓는분은 더욱조심하서야됩니다. 流行性感氣、黴菌으로 생기는기침、그외기침이나는병을 그대로두시면 肺炎肺膜炎、肺結核等으로 變症되기쉬우니 이런때에 靈藥「龍角散」을 服用하시면 모든기침병을 곳처주며 變症이 되올미전에 예방하여주고 속히根治식혀줍니다.



龍角散의主効

담기침에 ─ 담으로 괴로워하고 기침이 나서고롱을밧는만성담있는분께
천식에 ─ 그르렁거리고 숨이가뿌며 병이 오래끄러괴로워하시고게신분들께
咳嗽頻發 ─ 류행성감기기침 편두선염이생기는 기침一切에
肺病기침 ─ 肺病、肺勞、肺炎등으로 생기는 밧는기침一切에 특효잇슴
협담에 ─ 기침에섞겨서피가나오는분은계속하여서복용하시면특효가잇슴
백일해에 ─ 어린애들의기침 특히백일해로인한무서운만병을남겨주지아함
홍역기침 ─ 홍역은 어린애들의생명을좌우하는것입니다이병의기침에특효

●맛이향기럽고먹기조흐며절대부작용이업고
●胃腸에아무고장을일으키지안합니다

定價 二日半分 二十錢 / 十八日分 一圓
四日分 三十錢 / 四十日分 二圓
八日分 五十錢 / 六十五日分 三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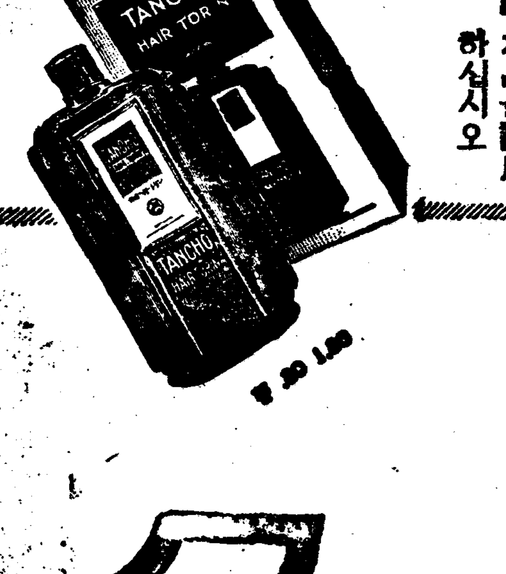
本舖 東京市神田區豊島町 株式會社 藤井得三郎商店 振替東京九一二番 電話(67)〇八二〇

▲全鮮藥房에잇슴▲

皮膚科學界의最高權威獨逸ウンナン博士의發見에依한

丹頂ヘヤートリン

★비듬이만허괴로워하는분 ★머리가가렵고氣分이낫분분은꼭本品을試用하십시오



巴里製보다優秀良品

丹頂チック

직구

各百貨店・藥店・化粧品店에잇습

斯く答へよ

이라케對答하라

저말입니까? 나는 整髮은丹頂팬입니다! 저밋끈한意匠과깨끈한感觸은우리近代人의心理에꼭잘맛는것입니다 동모와 또 그동모들은모도가丹頂직구黨입니다 아라! 그이도그럿습니까! 그이는엡부고 丹頂은華美하고丹頂을사랑하는氣分으로언제나그이를사랑합니다

國產最高級品

連載野談 (不許轉載上演)

布袋記 (一六九)

申鼎言 作
金熊超 畫

마저죽기소원(二八)

리선전관이 이곳 저곳에서마저 죽으려고 가진 행패를 다 부렷스나 그도 역시 뜻과가티 되지아니하는것을 한탄하면서 구리개길로 들어섯다。

그뜻은 구리개 약방의 계간군들은 그수효도 만흘뿐만 아니라 그중에는 행패군도 적지 아니할것으로써 그들을 만나서 또 한번 시비를 붓처 보려는것이엿다。

그래서 리선전관은 구리개를 들어선후 역시 먼저하든 수단과 가티 이사람 저사람의 발등도 밟고 또는 툭툭 치기도하야 시비를 붓처 보앗다。

그러나 그 사람들역시 하나도 대구하는 사람이 업시 몸을 피하기에만 분주할뿐이엿다。

「에이참!。이상도한일。마저죽기도 이러케 힘이 들줄이야 어찌 뜻햇스리。이러케 갓곳마다 낭패를 당한다면 마저 죽으려는것은 필경은 성사를 못하고 말것。자!。죽기는죽어야할 이몸。그러면 어떠케 해야 마저 죽을고。옳지。이제부터는 여러사람이 모힌곳을 차저갈것이 아니라 남의 집에 내정돌입을해서 마저죽는길을 어더볼수밧게!。」

하고 리선전관은 남의집에 내정돌입을하야 뭇매로 마저죽을 방침을 생각하얏다。

그런뒤 구리개로부터서 보습골(鋤洞)로 꺽겨 들어 장창교 다리 천변으로나섯다。

그런는중 소슬대문이 딸리고 남녀하인이 떠들석하는 집을좌우로 차저 보앗다。

그러나 그럴듯이 보이는 집은 모두 큰 대문을 다더버렷고 그러치 안흔집은 뛰어 들어가야 선뜻치 아니할것가티 생각이 되엿다。

「허허。욕사무지(欲死無地)라는 말이 과시 헛말이 아니로군 구려 내정돌입을 할만한집도 업단 말인가?。이 욕천이 종에……。」

하며 리선전관은 남의집을 뛰어 들어가 보려하나 그도 만만치 아니한것을 또한 한심하얏다。

어찌거리 리선전관은 마저죽을것은 그 소원을 한시 바삐 일우고저하나 엄로 일홀수업는 것을 한탄하면서 수표교(水標橋)근처를 향하고 실룩하는 거름으로써 걸어갓다。

그러데 수교를 막 지내자 그 여페잇는 큰집의 대문이 훤하게 열리고 남녀하인들도 오락가락하는 양이 보이엿다。

「올타!。이집이야 말로 내소원을 풀어 주려는 집이로구나。그러면 그럿치 지성이면 감천이라구 죽으려는 소원이야 못풀리가잇나!。」

하고 리선전관은 단단히 재하고 그집 큰 대문을 들어선뒤 서슴지 아니하고 안 중문으로 썩 들어 섯다。

때는 큰일마간!。

때마침 그집 주인녀자가 타는듯한 더위를 이기지 못하야 사내하인들은 다 밧그로 내어 보내어 얼신못하게하고 쪽을 풀어 이마에 휘휘친친 테머리를 하고 두발의 보선을 빼고 압 족종을 풀어헤처 노코 큰 백통대야에 물을 그득히 떠다노코서 한창 마음을 노코 젓퍼 가슴과 팔과 얼골에 큰 찬물을 좔좔 끼언기도하고 서시옥용산(西施玉容散) 비누가루로서 문지르기도하는 판이엿다。

바로 잇때!

리선전관은 서슴지아니하고안마당까지 들어서자 그 주인녀자의 은수바가튼 젓통이가 눈에 뜨이매

「되엿다!。되엿서。꼭작어서내 소원을 풀엇다!。」

하고 대거름에 대청우흐로 뛰어 올라 그 녀자의 허리를 얼사안코 그 넓은 대청이 좁다할만큼 이리로 떼굴떼굴 저리로 떼굴떼굴。두몸이 한몸이 되여서 떼굴、떼굴 굴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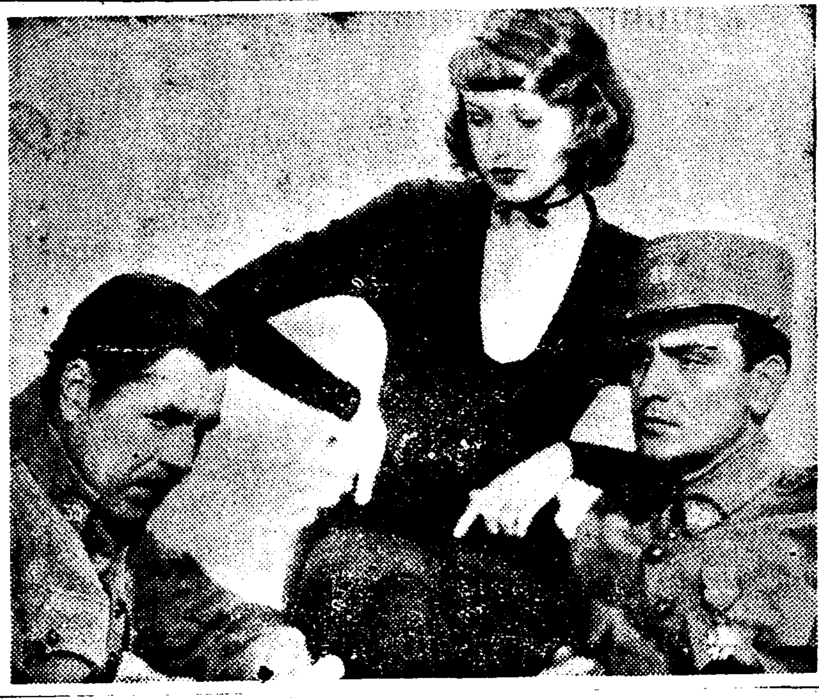
그주인녀자는 별안간에 그런 봉변을 당하자 어찌된 가닭을 아지못하야

「아아。사람 살려라!。사람살려。살림아!。매월아!。복순아!。다들 어듸갓니!」

하며 그주인집녀자는 자긔집계집 하인일흠을 잇는대로 모조리 불으며 사람을 살리라고 고함을 지르고 그 젊주인녀자가 그와가티 봉변을 당하는 것을 본 계집하인들은 정신을 사시나무 떨듯키 벌벌 떨며 감히 리선전관에게는 덤비지를 못하고 다만

「얼른 큰댁에 가서 영감마님께 엿주어…」

하면서 원 집안이 벌컥 뒤집히엿다。



「幸福의길」—二十世紀폭스社作品 하바ー트·혹스監督 푸레데릭·마ー치、워ー나·빠쓰타ー主演

★曆★ 十一月廿六日(木) 陰丙子十月大(十三日) 壬子·木·奎·除

●小雪二十二日(陰初九日)
●大雪七日(陰廿四日)

二十五日(水曜)

◇午後六時 노래공부(一) 李冤相 外兒童
◇同六時一五分 兒童新聞
◇同六時三〇分 國語初等講座 高橋平次郎
◇同七時三〇分 朝鮮文化講座(一) 崔南善
◇同八時 報道外 一、報念一、二、개고리打令 三、興打令 四、六字백이 金柳鶯 卞眞紅
◇同八時三〇分 音律 靈山會相 朝鮮正樂傳習所員
◇同九時 라듸오小說朗讀 마즈막편지—方仁根作—楊薰

第一放送

◇午後六時(東) 物語
◇同七時三〇分(東) 講演
◇同八時(東) 河東節
◇同八時二〇分(大) 尺八
◇同八時五〇分(東) 라듸오드라마

二十六日(木曜)

◇午後〇時五分 伽倻琴併唱 一、短歌 滄浪歌 二、唱劇調 赤壁歌 鄭鼎濤 鼓手 池龍九
◇同一時一五分 婦人時間 家庭經濟 尹德善
◇同六時 노래공부(二) 李冤相 外兒童
◇同六時一五分 兒童新聞
◇同六時三〇分 講演 冬節의運動 徽文高普 徐相天
◇同七時三〇分 朝鮮文化講座(二) 崔南善
◇同八時 라듸오드라마『新家庭風景』全一幕 姜湖南(文士)…李石九 榮子(그의안해)…金林玉暇 朴聖春(두부장사)…金[illegible]
[illegible] 一、[illegible] 二、[illegible] 三、[illegible]作曲 四、山에다아[illegible]…스미스作曲 五、西班牙貴婦人…에반스作曲 Y、보、케스벤드 指揮 山本直山
◇同九時一〇分 映畫이야기「[illegible]」 李[illegible]

第一放送

◇午後〇時五分(東)로ー커
◇同六時(城)하모니가合奏
◇同六時二五(城)心田開發講話
◇同七時(東)講演
◇同八時(名)新內
◇同八時二〇分(大)레뷰ー
◇同八時五五(東)新淨
◇同九時五分(東)라디오小說

二十七日(金曜)

◇午後零時五分(東) 吹奏樂 海軍軍樂隊 內藤清五
◇同一時一五分 洗濯講座(一) 李[illegible]一
◇同三時一〇分 教師의時間 얼골이야기
(第一放送에依함)
◇同六時 偉人이야기「카ー네ー기」 金汝植
◇同六時一五分 兒童新聞
◇同六時三〇分 講演敎育과敎化 第二高普 鄭義澤
◇同七時三〇分 朝鮮文化講座(三) 崔南善
◇同八時 歌曲 一、界面 二、[illegible] 三、界面[illegible] 四、界樂 五、編 大[illegible] 文明仙 黃金[illegible]
라듸오·劇研究會 玉鑛(이웃집下女)…柳淑子 몸쇠어머니(姜의집下女)…崔姬順 指揮 李如水 效果 朴一松
◇同八時三〇分 방아타령 一、방아타령外 二、노들江邊 三、金剛山打令 四、오봉산 [illegible]瓊蘭 笑琴姜 [illegible] 短簫崔壽成
◇同八時五〇分 (平)딴스 뮤ー
◇同八時三〇分 孔明歌 一、孔明歌 二、[illegible] 三、경난봉가 四、[illegible] 五、번조가 六、자진난봉가 七、개성난봉가 [illegible] 金[illegible] 大笒 金永根 [illegible] 金一字 白牧丹 鄭[illegible]
◇同九時 唱劇調 一、短歌老人歌 二、[illegible] 鼓手 韓[illegible]俊 方[illegible]

第一放送

◇午後零時五分(東)吹奏樂
◇同六時(東)라디오스켓치
◇同七時三〇分(大)講演
◇八時(大)라디오드라마
◇同八時四五分(東)小唄
◇同九時(東)라디오小說

映畫界揷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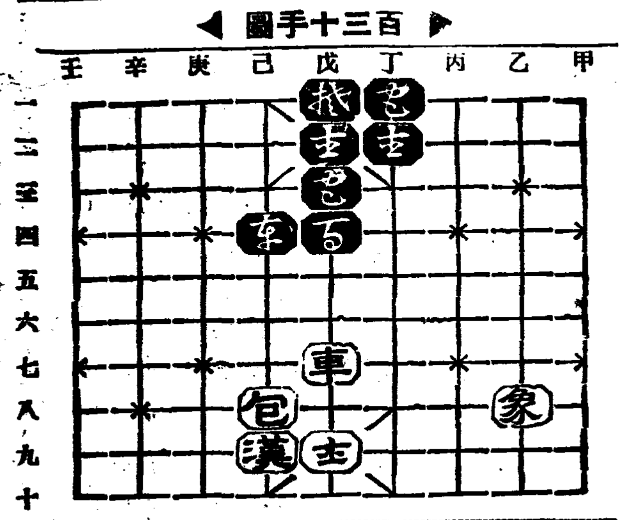
博士와「렐러ー」

將來博士가 되라고 熱心으로 學校에서 醫學工夫를 하고잇던 「로버ー도·렐러」도 運命이란할구진것이라 그와全然方向이다른映畫俳優로서 成功하게되엿지만 運命은더욱알구저서 그가出演하는 役이 또한 醫士役이大部分이다 그의出演映畫가 그다지만치안흔 오늘날에도 그는 今年一年間에 博士役을 三回나 出演하게되엿다 「사랑의빗」「小都會의女子」「그의兄使」라는 세個의映畫에 모다 그는 醫師로出演하얏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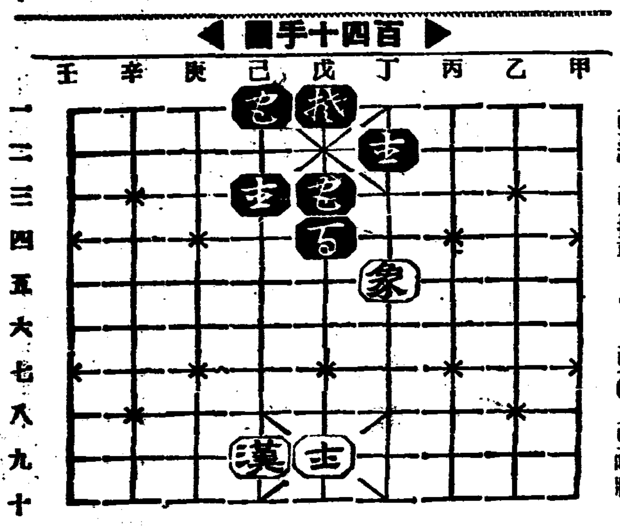
本社主催 將棋名手對局譜(四十)

兵一減 漢先手 李在鳳 對 盧世楨

◀百三十手圖▶



◀百四十手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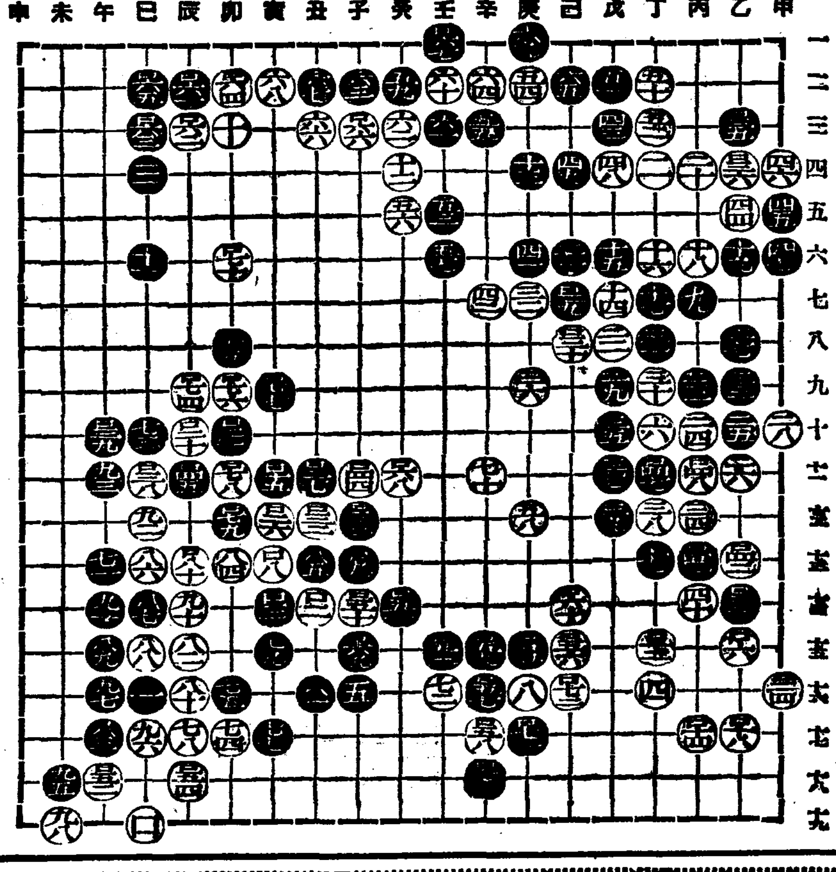


戊二車—庚二
丁一包—己一
乙六象—丁五
己一包—己六打包
己九漢—己八打車

戊二包—己二呼將
庚七車—己七
己一包—己七打車
己八漢—己九
己七包—己二呼將

本社主催 圍碁對局譜 —11—

白 蔡極文
黑先 權秉郁



●七十三 辰의二
○七十四 辰의三
●七十五 巳의三
○七十六 卯의三
●七十七 巳의二
○七十八 子의二
●七十九 壬의一
○八十 癸의十一
●八十一 子의十五
○八十二 卯의六
●八十三 庚의十七
○八十四 己의十六
●八十五 辛의十八
○八十六 辰의九
●八十七 卯의八
○八十八 卯의九
●八十九 寅의九
○九十 卯의十一
●九十一 卯의十二
○九十二 辰의十三

觀戰者談

黑이 庚의十七로 白을 斷하고 辛의十八로 白一點을 取한이 時局의 最要로 看譜되고 白은 辰의十死點引出이 亦是奇妙하다 局中預料가 敏速함을 讚揚하노라

가장確實또迅速히口中의細菌을一掃한다

ライオン齒磨(라이온)

使用할때부터、끗나는때까지、能히香味의淸新을갓는近代趣味의粉齒磨新罐入!

粉齒磨는、반드시容器에너허서쓰십시요

반드시여러분의白熱的歡迎을바드리라고밋습니다

定價 金拾貳錢

新罐發賣

科學的實驗의結果는、라이온齒磨의有效成分이不過卅秒의口腔作用을할뿐으로거진完全히口中의細菌을排除한다고立證을하얏습니다

發賣 ライオン齒磨本舖 小林商店

惠澤못밧는僻村에 醫療機關을擴充

限地醫師와醫生으로充當

咸南道衛生課서計畫

【咸興】함남도위생과에서는 도내에 아직도 의료긔관(醫療)이라고 하나도업는 촌읍이개소를 제외하고는 금후 의생(醫生)의 면허는 절대로 하여주지안는동시 의료긔관이 미비한곳에는 빠짐업시 한지개업의(限地開業醫)를 배치하여 근대적의료긔관을 적극적으로 확충(擴充)하려는방침을세웟다고한다 최근도위생과에서 조사한바를보면 함남도내에서 일년간사망하는사람중 백명에대하야 식륙명 즉시료「피1센트」는 의료긔관의 진료도못밧고 죽는 비참한실정이며 칠십일개소에는 의료긔관이라고는 하나도업는 한심한상태다

그럼으로 이들벽지(僻地)에의료긔관을 확충(擴充)할것은 급무중의 최대급무이라고하겟는데 종래의 의생(醫生)들로서는 도저히 완전한효과를 엇지못할것이니 의선의생(醫生)하나도업는 전긔칠십일개소에 한호의생이라도 무기위하야 당국가의생면허를 줄려이나 그외의 지방에는 빠짐업시 한지개업의(限地開業醫)를 배치(配置)하기로되얏다

한지개업의에 대하야는 매년시험도 불켜 그들 희망하는사람들을위하야 장긔(長期)의 강습회를 개최하야 대량으로 양성할방침을 세우고잇다

이리하야 한심한 함남의 의료긔관도 불과수년내에 젼부회충할터계획이라고한다

黃海道의自作農 二百餘戶를創定

農家選定의條件이까다라워 貧農層에는無惠澤

【海州】황해도당국에서는 총독부방침에의하야 소작농(小作農)에게 토지(土地)를소유시키고이것을 핵심으로하야 방교사상(思想)경제(經濟)적으로 안정을얻코잇는 농촌의갱생(更生)을 도모한다는 이도밋헤서 소화칠년부터 십개년계획으로 저리자금을 어며 자작농지설정자금(自作農地設定資金)을대부하야 자작농가를 설정하여오든터이데 금년임변도에도 식륙만오천원의 예산을계상해가지고 도내십칠개군내에 이백오십호의 자작농가를설정하리라한다

이자작농설정안은 의도가적고 외가리 훌륭하며 또한그설정방법에잇서서 소작농에게 저리자금(低利資金)을융통하고이십사개년간연부로 원금과리자를상환케하나 자작농가급농지선정(自作農家及農地選定)에잇서 「농촌의중견인물」「농업의지식과경험이잇는자」등의 까다러운 조건이잇는등에더욱이 「自作農이 되려는者는 二十歲以上으로서 身體强健事業成功의希望이充分하다고認定되며 더욱多額의負債를 가지지안흔者일것」이란조항이잇서 현재의농가는태반이 빗(債務)을걸머지고잇는터인데 이백원내지 삼백원의빗을걸머지고잇는 순빈농층은 이자작농설정안의 혜택을입지못하는터이라한다

그리하야 농촌의다대수를차지하고잇는 빈농층(貧農層)을 도외시한등안이 그의도하는바 농촌의구흥에대한 실적을 얼마나 나타낼것인가가 자못의문시되다고한다

新興鐵道延長線 延長工事竣工

十二月十日開通

【西湖津】남로발전되여가는 함남서호진은 어항수축이끗나자 다년간현안으로 되여잇든 신흥철도서호진연장공사도 거이끗나게 되엿다 그개통은 오는십이월십일부터 되다는바 교통긔관까지 완비되오날의 서호진주민은 더욱활기를 띄우고잇다한다

炭鑛聯合救護隊

二十九日編成披露

【平壤】무연탄(無煙炭)을 지하에무진장으로 간직하고잇는 평양부근의가탄항 더욱이사설탄항에서는 천정의함락, 〃메탄까〃스〃의 폭발등 사고가속출하여 매년천여명의 희생자를 내이고잇서 사회문제화하고잇거니와 사고가발생하면 항내의종업자생명의위험은물론 항내의손해도 불소하므로 이런것을 가장적은정도에멈춰야겟다는 복안을가지고 조선무연탄주식회사와조선무연탄주식회사에서는 량사의련합으로 탄파련합구제대(炭鑛聯合救護隊)를 조직하고 본부를 사동(寺洞)해군파견부에설치하기로되여 본부사무실을 건축하는일방 구호긔구의설비, 련습향도의설치등을 준비중이든바인설되여 이번구일오전열한시부터 구호대의편성피훈식을 거행하게되엿다 구호대본부에는 산소호흡소생긔(酸素呼吸蘇生器)를 비치해다가 탄광사고가돌발하는때에는 자동차로 구호대가급행하여 향내에뛰어드러가 각종구호작업을하는것인데 압흐로의기대가적지안흐며 과연이시설이유명무실에만 머저지지안토록 일반은기대함이크다고잇다

元山大公會堂

十二萬圓工費로 來年度부터起工

【元山】약진원산의 형모에 비하기위하야 십이만오천원의예산으로 금년도에 긔공하랴든 원산공회당은 그간 최초의예정인

이종거리를 할증으로 변경하여 계안으로 맘미압어 재차심의중이든바 모든조건도 대부분 낫숨으로 명년도에는 건축에착수하리라는바 총공비는 약이십만원으로 양육으로 훌륭한 대아당을 건축하리라고한다 그런데 그구조양식은 오는달초생에 열리는건설위원회(建設委員會)를 통하야 결정할모양이라는데 아래층으로는 창고등으로하고이층은 상공회의소사무소와 소집회장소로쓸것이며 계상은 대홀을 설하여 일천오백인을 수용할수잇게하리라는바 부지는 현재 경정공설시장(京町公設市場)을 해안통(海岸通)으로 옴기고 그자리에 지을예정이라고한다

珠算競技會盛況

五十餘名의參加로

本報宣川支局後援

【宣川】선천회관(宣川會舘)주최 본보선천지국후원의제일회전조선주산경기대회(第一回全朝鮮珠算競技大會)는 예정대로 지난이십삼일 오후한시반 선천회관회의실에서 개최되엿다 참가선수는 멀리 경성 평양등지에서도 래참하야 실로 오십칠명이라는 대성황을 일우엇스며 경긔는 초등(初等) 중등(中等) 일반(一般)의 세부로 난호아 각실(各室)에서 거행하엿는대 각선수의 숙련한 묘긔는실로 수백관람객의눈을 황홀케하엿스며 오후오시반 원만폐회하엿는바 각부의우승자는 다음과 갓다

▲一般部

優勝者 李弘稙(平壤)

次點者 李鍾商(定州)

同 田鳳敏(宣川)

▲中學部

優勝者 文永俊(平壤崇商)

次點者 洪鳳龍(新義州商業)

同 鄭元燮(宣商)

▲初等部

優勝者 金敬柱(宣普)

次點者 鄭潤三(宣川明信)

同 李成德(宣普)

染病걸린師範生 又復一名死亡

傳染系統判明

【全州】전주사범교생도중에 내종지부스(腸窒扶斯)환자가 발생하여 벌자일명사망을 대하병원에 입원시키고 일동이귀교하엿다하온바 귀교한후에도 화생수명이 발병하야 교의본전병원(本田病院)에 입원치료중이든바 동교강습과생 북도만부(北島滿夫)군은 지난 이십사일오전사시에 드듸여 사망하엿다는데 전주서위생계의 조사한바에의하면 동교취사계(同校炊事係)의 본전백중(本田百重)(二)이 보균자이엿섯다한다

各地에火神發動

東萊郡下에서 一名燒死 一名輕傷

原因은小兒의불작난

【釜山】지난이십삼일오후사시경 경남동래군사상면주례리(東萊郡沙上面周禮里)사백사십번지 홍문길(洪文吉)이가 쏴하노흔 집가리부근에서 홍춘득(洪春得)의장녀 봉선(鳳善)(六)과 배인분(裵□)(八)의 삼녀 복순(福順)(六)두 아이가 가젓든 석냥으로 불작란을하다가 그집덤이에 인화되여 복순이는 소사하고 봉선이는 경상을 당하엿다한다

長項에도火災 損害一千餘圓

【長項】지난이십사일새벽비시경에 장항산서리이구(長項山西里二區)동산공무소(東山工務所)공장내에서 발화되여 인접한 충일관(忠一館) 카페락원(樂園)에까지 연소되여 동다섯시반에 동산공무소공장을전소 추후사판을 전소시키고 소방조와 경찰서원의 활동으로 진화되엿다는바 손해는 약천원가량이라하며 화인은 방금조사중이라한다

筏橋里에大火災 五棟四戶를全燒

總損害額三千餘圓

【筏橋】지난 이십삼일오전령시반에 전남보성군벌교면벌교리에서는 불의의 화변으로인한 일대소동의참변이 발생하엿다 그로인한피해는 오동사호가 전소(全燒)되고 곡식과 가산동의피해가 대략삼천여원이요 발화의원인은 김정수(金正洙)의집변소에서 생기엿고 진화되기는 동일오전다섯시반이라한다

身元未詳의女子 金剛丸서投身

【釜山】지난이십사일오전륙시반부산입항의 관부련락선 금강환(金剛丸)삼등객실에 도근현(島根縣)출생가등데루(加藤テル)라는녀자가 보이지안으므로 선원들이선내를조사하얏더니 배머리좌현상부(船首左舷最上部)제삼작목공작업실(第三船木工作業室)의바다쪽에잇는 두터이약칠푼가량되는 유리창이 부서되어잇고 그부근에는 선혈이물들어잇섯스며 녀자의 의복이산란하야잇섯다한다 그래서 부산수상경찰서에급보하야 실지검증하얏는데 그자살한녀자는 이십삼일밤에 하관(下關)서 승선하엿는데 선원의 감시가업슴하므로 전긔장소에드러가서 유리창을 부신후의복을벗고 투신자살한것이라하나 그자살원인은 알수업다고한다

本社經由慰問品 一千餘點再分配

伽倻面五百餘名罹災民에게

感激에넘친그들의눈물

◇…伽倻罹災民에게慰問品配給光景

【咸安】전대미문의 금년여름수마(水魔)의작희에 여지없이 생명과재산을짓밟힌 함안지방의 재해범위는 경남의 최고위를 점령하엿다함은 루보한바어니와 풍한로숙과 긔아선상에서 헤매는가련한그들은 오직 세상의구원만바랄뿐이요 엄동의설한을 압둔오늘날 그들의정황은 갈수록가련할뿐인데 지난이십일에 본보함안지국원총동원으로 본사에서발송한 의복일천여점을 가야면도항리(道項里)말산리(末山里)오백여이재민에게 일일히 배에둘러메고 재지가야를 방문하엿는바 의복을받는그들은눈물을흘리며 감격에넘치는 목메인소리로 우리는 언제나 살길이닥치올가요 죽어가는우리들을위하여 멀리서 동정하여주신여러동포형제자매에게 감사한뜻을 전하여달라고 부탁을하기에엿다한다

눈물겨운慰問! 災地婦人들의赤誠

가려 본보함안지국원일동 의복일천여점을 에둘러메고 재지가야를 방문하엿든바 수마의 참화를 겪근재지엿스나 그참화는생각지 안코동족애에 끌어오르는 순정을참지못하야 가야부인회에서는 대표자 강봉(姜鳳)김복련(金福蓮)김순희(金順姬)삼씨가 눈물겨운의복이십여점을 모아서 본지국원반움지저 귀탁하엿슴으로 우리일행은 심로감사함을 마지안는동시에 일일히 이재민그들에게 고루등 전하고 배급하엿다

地方人事

▲柳靖鉉氏(辯護士)(全州常盤町自宅에서 去廿日逝去)

▲徐廷禧氏(東一銀行安城支店長) 新任人事次、本報安城支局來訪

▲權圭永氏(安城郡屬) 新任人事次 同上

拜謝滿員 絕對好評

青春座全員競演上演中

日本名作週間

◇上演劇本◇

喜劇「月給날」一幕二場

悲劇「아버지돌아오서네」一幕

悲劇「자식을죽이기까지」一幕

名飜譯 名配役 名演出

以上三大特長으로 斷然賞讚을밧는이번週間을보시지안으시면愛劇家로서큰損失이오니꼭보아두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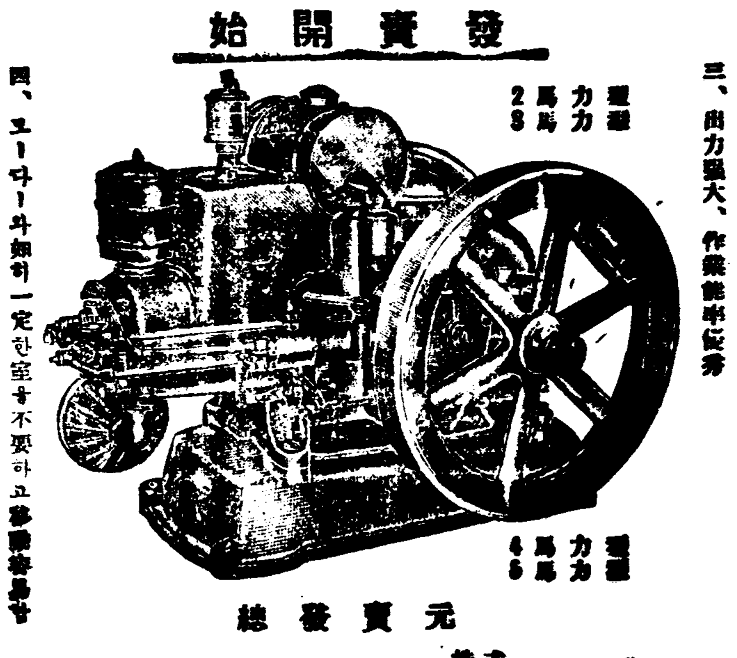
二十一日부터

東洋劇場

世界唯一●完璧을誇함

農業用小型얌마ー디ー젤

發賣開始



◎本機의五大特長

一、燃料經費가석유의三分之一、石油發動機의十分之一

二、取扱簡單、婦女子라도容易히運轉함

三、出力强大、作業能率優秀

四、모ー타ー와如히一定한室을不要하고移動容易함

五、回轉에差가업이모ー든用途에歡迎

◎特約店募集

詳細型錄進呈

總發賣元

株式會社 山岡發動機京城支店——山岡內燃機株式會社京城出張所

京城驛前

羊皮類廣告

將來成功을期必코 自他價의中價本位로 五個年間拾萬圓以上의 位置를 … 天下諸彥의愛護를 … 皮革及羊皮類 … 迅速하고 … 確實히 …

中國人羊皮專門商 寶成商店 謹告

新義州驛前通

恩給

五年分以上最低利長期立替借償借換歡迎乞照會

京城中學町一七女師前 金星商會

外科一般診療·入院設備完備

外科 金晟鎭 醫學博士

京城府 …

謹告 我綾城具氏大同譜刊行件 已爲發文又新聞廣告而尙多未入單處 故로 上系起草上支障莫甚不當하와 兹有漏譜之歎矣니 不日送單之地 敬望

京城府安國町八

綾城具氏大同譜所 白

그대들을

보기좋고 아름답게하는

ランラン ポマード

란란 포마ー도

新案特許

淋病治療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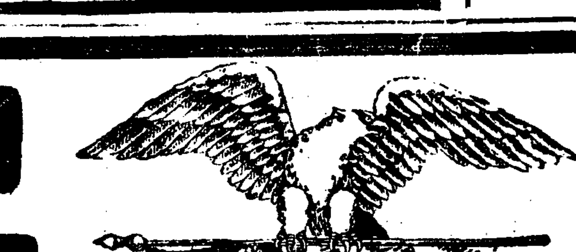
淋疾이거든、藥物療法에 失敗햇거든、

最新科學療法으로……

製造元 京城古市町 東邦科學興業株式會社

發賣元 京城昌成町七三 平山幸運堂 電話光化門二一九一番 振替京城二三八九六番

(領布代一圓九十二錢送料金先要貰送道荷科送 朝鮮內四十五錢 其他六十錢)



最高의治病劑

어을빈 魚乙彬

만병수정 萬病水錠

體毒과病毒을驅逐하라

一瓶 金一圓九十錢

本病불병 痰痛담통 疳瘡감창 咳喘해천 骨痛골통

遺病유병 瘰癧나력 積病적병 皮風피풍 腫氣종기

滯症체증 久嗽구수 癎疾간질 腎熱신열 吐痰토담

浮腫부종 梅毒매독 脚氣각기 喘慢疾천만질 連珠

瘡연주창 神經痛신경통 筋肉痛근육통 遺毒瘡유독창

半身不隨반신불수 腰痛症요통증 骨節痛골절통 數

溺症삭요증 楊毒瘡양매창 動脈硬化症동맥경화증

其他內外慢性病

보재약정 補材藥錠

慢性胃腸病 만성위장병 神經衰弱 신경쇠약 重病回復 중병회복 動脈硬化 동맥경화

精力減退 정력감퇴 食慾不進 식욕부진 體質虛弱 체질허약

心臟諸症 심장제증

一瓶金二圓

金鷄納

十二平當 金一圓六十錢

二十五平當 金三圓

보재고약 화상、태독、종기 두창、가려움 타박부병 金五十錢

옴약 모든옴병 金五十錢

◆廣告冊子無代進呈◆

朝鮮釜山府藥町

魚乙彬製藥株式會社

電話(長)一九七九 振替釜山二〇〇

魚乙彬 어을빈

經濟解說 今後의朝鮮銀行 滿洲興業銀行創立 ● 李健赫

滿洲國政府는 二十日午後五時 滿洲興業銀行 設立에 關하야 正式으로 發布하얏다。

이銀行은 來月三日 滿洲國으로부터 滿洲興業銀行法을公布하는 同時에 創立委員을任命하고 五日 創立委員會를 開催하고 定款其他 創立에關한 一切의 法定手續을 終了하는 同時 株込을 徵收하고 六日 創立總會를 열고 重役을選任、正隆、滿銀의 合併報告承認에關한 臨時總會를 開催하고 二十一日까지에 三銀行으로부터 業務引繼를바더 朝銀二十店、滿銀十九店、正隆二十一店 合計六十店及 行員은 朝銀四百五十名、滿銀四百名、正隆四百三十名 合計一千二百八十名 全部를引繼하리라하며 預金總額一億八千八百萬圓、貸出總額一億六千六百萬圓도 引繼바더 明年初에開業하리라는데 이滿洲興業銀行의 內容은 大體다음과갓다。

一、資本金三千萬圓 우선半額拂込으로 開業하는데 出資者는 滿洲國政府와 朝鮮銀行이 各其半식 引受한다

二、業務는 滿洲國의產業開發에必要한 長期低利資金을供給함을 主目的으로하고 一般銀行業務도 營爲한다。卽朝鮮으로치면 朝鮮殖產銀行과 一般銀行을 兼한 銀行이다。

三、以上目的을遂行하기爲하야 資本拂込額의 十五倍를限度로 債券을發行케하며 外國에서(主로日本內地)債券을 發行할수잇다。그債券은 元利金支拂에 對하야 滿洲國政府에서 保證하야 滿洲興業銀行債券을 信用잇게하고 그發行을有利케한다。

四、滿洲中央銀行과本銀行과는 그使命이相異한것으로 이것을明示하면

▲滿洲中央銀行=日本銀行이나 朝鮮銀行처럼

▲滿洲興業銀行=日本勸業銀行 朝鮮殖產銀行처럼 滿洲國의特殊銀行으로서 債券을發行한다

五、他銀行과의 關係 朝鮮銀行의 在滿洲支店은 關東州에잇는것을 除하고는 그全部를 新銀行에 讓渡한다。그리고 關東州에 本店을둔 滿洲銀行과 正隆銀行은 그業務一切를 新銀行에 讓渡하며 正隆銀行의 靑島、天津兩支店業務는 朝鮮銀行에 讓渡한다。그리하야 滿洲興業銀行은 關東州에 支店을新設한다。

×

以上과가튼 滿洲興業銀行創立으로 朝鮮銀行은 滿洲로부터後退케되엿스나 그實際는 朝鮮銀行이 新銀行의 半分出資主일뿐아니라 首腦者의 人物을보면 總裁는 大藏省當田財務官(처음에는 松原副總裁說이 有力하얏다)外에 朝鮮銀行으로부터는 松原副總裁、松田理事가 各其新銀行副總裁、理事로 轉出키로되엇고 關東州를除한在滿支店全部를 讓渡하되 支店長以下行員全部가 그대로 引繼됨으로 實質에잇서는 朝鮮銀行이 新銀行의 半主人이오 사람으로主宰者를 派遣하야 行員의多數가 사람임으로 滿洲興業銀行은 實質이 밝구이드래도 朝銀으로서는 아조섭섭할것은업다。

×

一方 滿銀은 滿洲國內의 幣制統一과 日滿間의 爲替安定維持를 目的으로서 昨年十二月七日 滿洲中央銀行間에 所謂業務協定을 하얏는데 그것이 來月六日로서 有効期間一個年이 終了됨으로 更改存續을하고저 兩銀行間에서 折衝中인바 때마침 滿洲에잇는 金融統制工作이 進展되어 滿洲興業銀行이 新設케되엿스며 今日의 滿洲의 金融事情도 一個年前에 比해서는 一變햇음으로 更改存續할 兩銀行協定에잇서서도 影響이 업지안흘것인바 元來이協定이 맷게된것은 滿洲國幣制統一과 爲替安定維持의二點을目的으로한것인데 前者는 滿洲의 金融統制手段으로서 新設된 滿洲興業銀行에 依하야 朝銀은 滿洲로부터 後退케되엿슴으로 第一目的은 事實上 解消되엿다 그러나 日滿爲替安定은 今後도 存續이 絶對로 必要한바 이것만은 存續될것이다。그리고 日滿爲替市場는 協定成立以前은 恒常變動不止하야 日滿間의 資金移動에 만흔 障害를주엇든것이 協定締結後는 本圓百圓에對하야 滿洲國幣百圓으로붙들어매어 安定되어 日滿間資金移動을 圓滑케한데 多大한貢獻이잇섯든것이다。 —(계속)—

土地改良復活 朝鮮產米增殖

地目變更等消極政策一擲? 再檢討必要論擡頭

朝鮮의 土地改良은 昭和九年 一次中止하고 現在에至하얏는데 當初計劃畓面積은 千七百萬町步中 九十四萬町步까지는 水利不安全畓이오 其不安全畓中實로 五十四萬町步는 天水畓임으로 總督府에서는 今後이對策을 如何히할가 農產者調查會에서 水利不安全畓에對하야 根本對策을 確立키爲하야 調查하고 水利不安全畓의改善을 助成하는同時에 改善할可望이잇는것의 地目을變換할方針을 樹立하얏는데 實際的으로는

一、地目變換에依하야 田作을獎勵하면 米作에相當할만치 어느程度의 助成을할것이나 助成金의 交附가끗치면 農民은 數年만의 豊作이到來할 米作이有利라하야 反復傾向을示하다

二、五十四萬町步에 達하는天水畓에 助成金을裏히한은 多額의經費를要하고 地目變換을 强制하기가 困難하다

等의理由로 根本對策은 亦是不安全畓을 安全畓으로 導하는外에 他途가업다한다

그리고 一方滿洲國과 如히는目下土地改良計畫을 樹立하는中이라고는하나 到底히朝鮮과가튼데 까지 引上키가 容易치안흠으로 滿洲의 米는今後滿洲國이發展하는同時에 去益需要를增加할것이 疑心업슴으로 滿洲國의米의 需要는朝鮮으로부터 補給함이 地理的關係로보아 가장安當하고 此際朝滿間의 連絡을緊密히하야 食糧問題의 對策을樹立하고 今後는 朝鮮의 地目變換等과가튼 消極的政策을 一擲하야 滿洲의需要에 應할만한準備가必要하며 朝鮮의米穀對策、土地改良等은 잘硏究할것이라하야 各方面에서 注目되고잇다한다

米穀委員會 二十六日開催

總督府入電에 依하면 米穀自治管理委員會는 二十六日 內閣에서 開催하고 今年度의需給推算을 附議할터인데 總督府側의 觀測에 依하면 米價關係로 今年內는 自管法의發動을 行치안코 結局同法의發動의必要를 認치안코 經過되리라한다

十月分의 米穀移動 =農林局發表=

一、米穀道外搬出數量

道別	搬出數量	比前月比較增減(△)
京畿道	四、二四八石	一、六六三石
忠淸北道	一、○四四	△一、[illegible]
忠淸南道	三七、七七四	△三六、[illegible]
全羅北道	八、七六三	七[illegible]
全羅南道	四、七三三	△二、[illegible]
慶尙北道	二五、○七六	六[illegible]
慶尙南道	一、七七三	△一三
黃海道	九五、八八四	四四[illegible]
平安南道	一、七七六	[illegible]
平安北道	一五、七七四	一四[illegible]
江原道	三、一三三	三三[illegible]
咸鏡南道	四、八三五	[illegible]
咸鏡北道	五九二	△[illegible]
合計	二三一、三二四	一七[illegible]

二、米穀移出數量

	比前月比較增減(△)
三六六、八六三石	△六三、三二三石

三、米穀輸出數量

	比前月比較增減(△)
一、六八石	△三、五○石

朝取今期配當 一割六分內定

朝鮮取引所에서는 二十五日午前十一時부터 重役會를 開하고 當期假決算과 配當에對하야 協議한結果 結局配當은 年一割六分(六分增配)으로 査定코 散會하얏다

◇…朝取田崎支配人談 役員會에서 今期配當을 年一割六分으로 內定하얏는데 收入만을보면 高率配當이 될것가티 思料되기도하다 實際는 一般의 豫想치안는 臨時利得稅 所得稅等에 多額의稅金支出이잇는 一方 相當한 減價償却積立金等을 計上하고 會社內容의充實을圖할 必要가잇서서 이程度에止한것이다

朝鮮內紡績現況 十九萬二千錘、五千五百台

朝鮮의紡績業은 今年十一月現在로 紡錘數十九萬二千四百六十四錘 機臺數五千五百五十六臺에 達하얏다 各社別能力은如左하다

	紡錘	織機
朝紡釜山	六九、三七六錘	一、三三○臺
東紡仁川	三一、四八八	一、二八○
鐘紡光州	三五、○○○	一、○○○
同永登浦	三五、○○○	一、○四○
京紡永登浦	二一、六○○	八九六
朝棉木浦	……	二一○
合計	一九二、四六四	五、五五六

備考=織機臺는 百臺以下中小工場省略

一兩年中五十萬錘?

이外에繼續하야工事中인 東洋紡績(京城) 鐘紡(平壤、新義州、大邱) 目下計畫中인 東洋紡績(平壤) 日紡(京城)의 各工場이잇서 一兩年中에는 五十萬錘突破가 確實하다하나 今年十一月末의能力으로는 朝鮮內綿布需要의五十五%를充함에不過한狀況이라한다

朝鮮의產業統制 洋灰에만限定 委員會는別個로設置

重要產業統制法은 洋灰에限定하야 勅令으로서 朝鮮에 施行키로 決定되엇는데 同法의業種指定에當하야 權限問題의 統制委員會設置는 渡東中인 總督府關係者와 中央關係當局間 折衝中인바 同委員會는 內閣에 日本內地朝鮮을 一體로한 組織으로서 設置할지 或은 商工省과는 別個로 總督府部內委員會를組織하고 따로히設置할지가 問題이다 最近頻傳하는 統制法의指定業種擴大는 總督府側은 當分洋灰만에 限定하기를 固持하고 製粉、綿布、綿織物 人絹等에關하야서는 全然關知치안는다한다

朝銀이朝鮮內 支店網擴充 滿洲後退後의方針

朝銀은 滿洲後退後그主力을朝鮮內에 注力하고 積極的營業方針을 取할것으로 豫想되는데 第一着手로서 朝鮮內의 支店網을 擴充하게될 模樣으로 從來金融機關이 업서 不便을느끼는 地方 或은 商圈이연는 地方으로서 比較的有望한 都市에는 新支店을 設置할方針이라한다 卽新義州와如한것은 朝銀의滿洲後退에 依한 安東縣支店廢止에依하야 兩國貨幣의 兌換上으로도 新義州에支店設置가 必要케되고잇음으로 不遠間實現할모양이라한다

金利過度低下 年末압두고金利硬化? 手形割引一錢二、三厘

最近 京城金融界에는 各銀行의 貸出競爭의 結果 實勢以上으로 金利低下가 顯著하고 手形割引으로는 一錢二、三厘라는 低金利物이 橫行하고잇는데 右는現在의 日本內地를 市場其他一般金融市場의 情勢로보아 過低한 嫌이잇고 地元銀行及日本內地支店銀行間에는 金利是正에對하야 協議中으로 或은이結果 二厘引上을 協定할지도 모른다한다 何如間 年末을 目睫에두고 市中金利의 硬化가 注目된다한다

資本逃避防止 爲替管理令① 無爲替輸出取締

大藏省에서는 現行爲替管理法에基한 命令의 整備强化의目的에서 現行命令의 거의全般에亘한 更改를 企圖하고 廿一日午前十時부터 永田町藏相邸에서 爲替管理委員會를開催하고 改正案을 附議하야承認을어덧스므로 省令으로써 改正令을 公布하고 來十一月一日부터 實施하기로되엇다 改正要領은 如左하다

一、爲替思惑의 禁止對象으로 從來의一方의 關係國이 日本이外國爲替外에 外國相互間의爲替를 加한것

二、日本과 外國과의사이의 支拂指圖書는 實質上、爲替手形、小切手等과 다를바업스므로 이를 外國爲替의 一種으로 取締하기로한것

三、貿易關係其他平常業務上의原因에基한 外國爲替又는外國通貨의 買入其他의 方法에依한 外國送金으로서 一個年을通하야 千圓相當額以下의 少額의것은 自由로하는 同時에 他面要許可取引의 範圍를擴大하야

（가）貨物의觀念에서 證券을除外하고 證券輸入代金의送金을 要許可事項으로한것

（나）爲替管理法施行前에 締結한 契約에基한 義務履行으로서의 送金을 要許可事項으로한것

（다）外國旅行者의 旅券携帶 在外者에對한 旅費及諸送金과 在外家族에對한 生活費送金에對하야 一萬圓相當額을 超過할 境遇를 要許可事項으로한것

（라）千圓相當額을超過하는 通貨의現送은 外國旅行者의旅費携帶의境遇에끈치지안코 모다要許可事項으로한것

四、外貨表示의 登錄公債及株式을 外貨證券으로 看做하고 그 取得處分等도 取締키로한것

五、外國에서支拂을바들 外貨株式配當及外貨證券利金(利札)의 形態를가지지안흔것에對해서도 處分義務及 이代金取寄義務를課한것

靑果卸商側 府尹을訪問

京城府에 近間建設될 京城中央卸市場의 靑果卸商人에對한 府當局의 方針을聽取키爲하야 辻川嘉三郎、藤田米三郎、森川米吉三氏가 二十五日午前十時부터 京城府로 甘蔗府尹을 訪問하얏다

經濟界消息

○京春鐵年內三百自動車買收=京春鐵道에서는 江原、京畿兩道에 貨物自動車運送을 經營키爲하야 業者 京江陸運會社를買收하고 目下營業中인바 更히乘客自動車의 統制를하기爲하야 過般來 內鮮自動車、朝日自動車、春川自動車의 買收工作을進行하고잇는바 大體今年中에右三社買收를할것이오 五里、鮮一自動車도 來春에入하야 買收에 着手키로되리라한다

取引停止 (十一月二十日)

▲荒物雜貨卸商京城府明治町一丁目四五 富茂橋本茂一 ▲京城府櫻井町二丁目五一 山菱商店秋山憲弘 ▲京城府新當町一〇九 李撰元 ▲京城府鍾路三丁目八五 永信商會 李奎昌

經濟寸鐵

○簡易生命保險으로 매달九十五萬圓식 遞信局으로 들어간다고

○貧弱한 朝鮮人生 六十六萬件、六十一萬圓식넘다니 끔직한돈

○朝取配當은二割六分으로 六分增配內定

○取引員側은 二割以上을 希望하얏스나 一割六分도 過치안흘가 뒤人일도생각하다면……

○滿洲後退後의 朝銀은 朝鮮內서 支店網을擴充하리라고

○銀行合同은커녕 銀行支店沙汰가 날모양

株式 後場俄然 急騰

商況 (廿五日)

前場閑散 今前場은昨後場과거의 不變으로 東新百四十一圓九十錢으로 十錢低、朝新三十五圓四十錢으로 十錢低、日產八十四圓丁으로 同價에 各各寄付하고잇다

後場急騰 後場은 東新百四十二圓四十錢 鐘新百八十三圓九十錢 日產八十四圓五十錢 大新七十一圓七十錢等으로 急騰하엿다

市勢底意强硬 近日東新은 百四十二圓臺內外에서 保合될뿐이오 上下어느곳으로도 移動치안코 不動의姿勢를取하고잇서서 만약이것이오래繼續되다면 嫌氣投物을 부를지안흘가하는念慮가 업는바아니나 連日의步調는 底意强硬함을 엿볼수잇다 다만環境의不透明과 雜株의整理商狀에 新東獨舞臺를限定될수는업서 此邊에서 綜合하고잇는것이아닌가 想像된다 卽綏東問題가 重大化하여가고는 하지마는 日中交涉의아울러 이것을 無上의 影響으로 材料가되다고는 못할것이오 日蘇關係는 漁業條約延期說이 虛報이엇음을 傳하야 俄然 明朗化하게 되엇고 貿易에 對해서도 悲觀人氣가濃厚하지만 十月까지의 統計는前年에 比較하야 輸出一億二百萬圓 輸入一億三千五百萬圓을增進하엿고 日印、日蘭、日濠通商交涉도 不遠에 끗날터이므로 前途는 悲觀視할것이 업다고하며 金融硬化도 基調에는 何等變化가업스니 結局 玉整理를 마치게되면 動할것이 아닌가 하는 商談이 不少하다

雜株整理繼續 雜株는 依然玉整理商狀을 繼續中인모양으로 大阪短期도 前場大引은 昨後場止價에比하야 日魯가五十錢高 綱當이 七十錢高를보엿을뿐이오 鐘新二十錢低 日鐵二十錢低 日產十錢低等으로 保合裡에不勢이며 賣物도 日魯新이八十錢高로 三十五圓三十錢인것이 注目된다 其他는 區區不一하야、日出日滿아루미新과東滿과堅、日出紡績等은 不變이오 電工이八五〇一八四〇〇으로頑强하고 東人造羊毛一〇四〇〇으로 四十錢高等으로 一高一下的商狀을 繼續하고잇다

大株委託證金改正【大阪電話商通】大株取引員組合에서는 左記和解에對하야 長短期取引共히 委託證據金을 改正하기로되어 二十六日부터 實施키로되엿다(一株에對하야) ▲鐘新二十圓(二十圓上) ▲滿洲四圓(二圓下) ▲淺野新四圓(二圓上) ▲日立(長期만)一〇圓(五圓上) ▲同新一〇圓(五圓上)

實物前場取引

▲大同產業 六六 ▲全羅鑛業新 [illegible] ▲昭和木株新 [illegible] ▲東亞土木 [illegible] ▲京東鐵道新 [illegible] ▲滿洲炭鑛 [illegible] ▲朝鮮製鍊 [illegible] ▲東 [illegible]

東京國債市況

【東京電話商通】赤字公債發行을압두고 月末金融의 硬化傾向에 잇는것과 米貨債가 三圓內外低落한데 嫌氣하야 人氣軟弱으로 圓價의一、二十錢 佛貨十錢 利級하고 賣買는 閑散이엇다 ▲甲五分利 一〇一、一五 ▲[illegible] 一九五、二〇

大阪國債市況

▲甲五分利 一〇〇圓八五 ▲二圓四分利 [illegible] ▲弗貨 [illegible] ▲英貨六分半 [illegible] ▲滿洲公債 [illegible]

今日財界 (廿五日)

◆米 (單位圓)

	今日止	比前日
仁川期米 先限	[illegible]	[illegible]
大阪期米 先限	[illegible]	[illegible]
京城一等白米	[illegible]	[illegible]
正租(仁川)一等	[illegible]	不變
一斤價三等	[illegible]	不變

◆株 (單位圓)

	今日止	比前日
朝取新	[illegible]	[illegible]
東新	[illegible]	[illegible]
日產	[illegible]	[illegible]
大阪綿糸	[illegible]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illegible]
大阪人絹	[illegible]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illegible]

期米 低迷不脫 同調

前場低迷 昨後場阪地二十九圓四十錢止와共히 二十七圓四十三錢에場을止한 當市場은今朝에入하야 阪地初付二十九圓三十八錢인 二丁反落을 據하고 二十七圓四十二錢인一丁低로 場을始한後 阪地四節三十九錢으로 四十六錢까지小戾하엿다가 四十四錢에 止場을告하야 一節五十二錢으로 四十五錢까지 小押하엿다가 結局四十八錢에場을止하엿다

後場反高 後場은 二十七圓五十錢인 二丁高로始場한後 四節五十三錢으로 結局五十九錢에 止場하엿다

潮先은賣叩코 田中眞은傍觀 昨後場一節에 當地二十七圓七十一錢阪地二十九圓七十錢까지 暴騰하엿든 市勢는 阪地潮先一派의 賣物로 依然軟弱되어 阪仁共히 三十丁內外의 反落을 告하엿다 當限은 三十圓六十錢까지 反撥하엿스나 群山、木浦、釜山等地를通하야 阪地賣方의 渡米가約五萬石이나 調達되엿다는說이잇는 一方 潮先의賣物이 突然現出한모양으로 三期共히 一齊低落을招來하엿스며 當地亦此에牽制되어 軟弱에陷하엿스나 當限戰의內容은 아즉도 旗幟가鮮明치못하야 이러타할만한 渡米蒐集도업슴으로거니와 受米할만한主力側도 分引退하고야말것갓고 阪地는相當한受渡量을 見하게될것갓다고云云

六感

米▲……昨日은 約十丁低落 今日은 十丁程度의返戾! 低落途中의呼吸? 一時的押目? 果然經濟的市勢인가▲日本內地米의豊作으로보아서는 一時實米의壓迫을 免치못할듯도하나 米價는意外頑强▲農家의賣惜으로 到底 一擧으로低價에는 擧치안는다 高物價의政策이 非常한刺戟을興할이을可知▲昨今朝鮮은 殆貯藏實施하는모양! 無檢查米와 等外米는 六割乃至五割程度로 檢查米는 八割程度의貸付를하여준다니 此는確實히 賣하지안흘수업는것

株▲……內外情勢가 複雜無雙하므로 市場人의神經이 매우銳敏해지는同時에 警戒를 不怠하는모양▲그러나 情勢의變化라하더라도 財界의 根底를 動搖시킬만한 材料야어대잇는가▲國際情勢도 너무나 宣傳에만 迷惑하지말고 大局的見地에서 靜觀함이 可哉▲月末을無事히지낼는지 疑問이나 月末의 無風狀態이면 歲末風景은 活潑裡에 複雜할것을 豫想하자……

阪當의渡米說 五萬石調達?

某消息通에依하면 堂島天下의 買方主力側인 田中眞一派의當限買物이 五萬五、六千石이나되는 그反面의賣方聯合側은 實藏을整備하야 最後一戰에備하려고 群山에서三萬石 木浦에서五、六千石 釜山에서 五千石을 買付하엿다는說을 傳하고잇다 此의眞否는아즉 確知키難하나 群山에서二萬石積出한것만은 事實인모양인데 渡米의 蒐集만은 事實인모양이나 買方田中眞으로부터 渡米의 數量그대로 受取하는때는 當限戰도 意外平穩裡에終幕을告할지 亦未知이다 그런데 田中眞의態度는 日本內地米의大豊作임에도不拘하고 高物價의政策으로보아서의 米價高의 低落을許하지안흐리라는 見地에서 어데까지 態度를 變치안코잇슴으로 受米를 辭하지안흘것이라고보고잇다 果如何?

朝取期米取組內容 (單位百石)

	賣方	買方
當限	[illegible]	[illegible]
中限	[illegible]	[illegible]
先限	[illegible]	[illegible]

堂島前場賣買

前場主要賣買는 如左하다
賣方=高瀨側三木自己、地場軟派
買方=地場强氣、東京側

各地正米

京城下放 定期低와 實物增加에 氣配二十錢崩落이엇다 ㊀三等二八、三〇 四等二八、〇〇 一等白米二二、五〇

仁川反落 產地는比較的底堅하나 實行不振과 定期不冴에 市況은 依然히 活氣를보이지안코 氣配二十錢反落이엇다 ㊀三等二八、三〇 四等二八、〇〇一 等白米二一、八〇

釜山軟調 市場實物莖手에 移出側은 採算上과 定期低에 移出側은 探算上 ㊀三等二八、三〇 四等二八、〇〇 一等白米二一、八〇

大邱氣崩 地方賣買는 相當히잇스나 定期軟調와 奧地의 整理的賣物이 出現하야 氣配二十五錢反落하엿다 ㊀三等二八、〇五 四等二七、七五 一等白米二二、〇〇

市勢는 十五錢軟化하엿다 精米原料買一息으로 買進치안코 ㊀三等二八、〇五 四等二七、七五一 等白米二一、〇〇

群山崩壞 翌着三十六輛이잇섯는데 阪神期米側의 手當一巡과 定期軟調를 옴겨 一時價位 悲觀에서 賣繼踏하고잇든 產地 賣急物이 出現하야 市勢는四十錢 崩落이나 買氣는不添이다 ㊀三等二八、〇〇 四等二七、八五 一等白米二一、一〇

木浦軟化 低價賣警戒氣味이나 定期低와 月末接近의 換…

株式 (廿五日)

◆朝取短期

[illegible]

◆實定 代引 日步

[illegible]

◆朝取短期賣買高

[illegible]

◆東京短期取組

[illegible]

◆東京現株

[illegible]

◆大阪短期取組

[illegible]

◆大阪長期

[illegible]

◆大阪短期

[illegible]

期米 (廿五日)

◆朝取期米 [illegible]

◆朝取期米賣買高 [illegible]

◆大邱期米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木浦期米 [illegible]

◆群山期米 [illegible]

◆釜山期米 [illegible]

◆東京期米 [illegible]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大阪正米 [illegible]

◆大阪市中在米高 [illegible]

◆各地正租市況(單位錢) [illegible]

商品 (廿五日)

◆大阪綿糸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各地人絹 [illegible]

◆大阪人絹現物 [illegible]

◆橫濱生糸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海外砂糖 [illegible]

◆카카오期安 [illegible]

◆滿洲商況 [illegible]

◆大連特產市況 [illegible]

◆大豆 ◆豆油 ◆豆粕 [illegible]

金融 (廿五日)

◆海外經濟 [illegible]

◆朝鮮銀行券 [illegible]

◆日本銀行券 [illegible]

◆京城手形交換高 [illegible]

◆東京金利 [illegible]

◆大阪金利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金買入價 [illegible]

◆東京市中金銀價 [illegible]

◆京城正米 [illegible]

◆京城雜穀 [illegible]

◆仁川正米大豆 [illegible]

商品 (廿五日)

◆京城綿糸布市況 [illegible]

◆京城絹布 [illegible]

◆鐵油冲價 [illegible]

◆鐵粕冲價 [illegible]

◆日本麥粉市況 [illegible]

期米 東 趙後鎬取引店 仁川本町三丁目

康益商會 京城 仁川 米 株 金益證券

仁川 期米 福 吉村取引店

全北朝鮮紙 品質極良 薄利多賣 一手販賣元 株式會社 朝鮮紙業

金銀 金土石 分析賣買 金銀賣買會社 京城府南大門通一ノ九五 電話本局一三八〇番 振替京城一三四八〇番